

21일 Market Index			
	코스피		코스닥
	4909.93 (+24.18)		951.29 (-25.08)
	금리 (국고채 3년)		환율 (원·달러)
	3.138 (-0.053)		1469.60 (-8.50)

시 반도체 가격 폭등
스마트폰·노트북
가격인상 불가피
03



2002년 5월 31일 창간 독자센터 (02)721-9841 구독료: 월 20,000원 / 1부 1,000원

뉴메트로 10주년 대한민국 희망을 찾아서

2026년 1월 22일 목요일

“황금알 거위 아니다” “대한민국의 성장 지도 다시 그려낼 것” 흥행참패 대책 필요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사업권 입찰에 롯데면세점과 현대면세점 두 곳만이 참여하며 경쟁없는 입성이 결정됐다. 승자의 저주를 우려한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은 물론 설명회에 참여했던 글로벌 면세 1위 기업 아볼타도 입찰을 포기한 결과다. 한 때 연간 3조원에 육박하는 매출을 안기며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각광 받던 인천공항이 기피 지역으로 전락하면서, 면세 산업의 구조적 위기가 표면화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수익성 없는 임대료 구조 ‘비관론’ 롯데·현대 참여, 신라·신세계 불참 면세업계 1위 아볼타도 입찰 포기

일본 공항의 ‘도쿄 바나나’ 처럼 킬러콘텐츠 개발, 위기 벗어나야

21일 업계에 따르면 전일 마감된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DF1-DF2 구역 신규 운영사업자 입찰에 롯데와 현대면세점 두 곳 만이 참여했다. 신라면세점은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고, 신세계면세점도 응찰 서류를 제출했다가 막판 철회를 결정했다. 아볼타는 물론, 유력 후보로 거론되던 중국국영면세점그룹(CDFG)은 참여조차 하지 않았다.

업계는 이번 흥행 참패의 원인은 인천공항의 기형적인 임대료 구조에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공항 임대료는 공항 이용객수에 해당 임대료를 곱해 산정된다. 여객 수가 늘어나면 임대료는 치솟지만 정작 여행객 1인당 구매액은 줄어드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입찰의 임대료는 기존보다 5.9~11.1% 인하됐음에도 수익성을 보장하기엔 역부족이란 지적이다.

이휘영 인하공전 항공경영학과 교수는 “코로나19 이후 소비자들이 온라인 및 비대면 쇼핑에 익숙해지면서 공항 오프라인 매장의 구매 매력력이 급격히 떨어졌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공항공사

는 여객이 늘면 매출도 늘 것이라 낙관하지만, 사업자들은 객단가 하락으로 인해 팔아도 임대료 내기 벅찬 구조적 한계를 느끼고 있다”며 “이 과리가 입찰 흥행 실패의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업체들이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공항 면세점이 가지는 상징성에 있다. 인천공항과 같은 대규모 국제공항 면세점의 운영권을 가지는 것 만으로도 글로벌 명품 브랜드의 구매 우선권은 물론, 새로운 시장에 진출에 유리한 강력한 레퍼런스를 확보하기 때문이다.

이번 입찰에 참여한 한 면세점 관계자는 “인천공항은 아시아에서도 손꼽히는 대규모 공항으로, 브랜드가 입점하면 거대한 광고관 역할을 한다”며 “공항 매장이 있어야 글로벌 브랜드와의 협상력을 높이거나 상품 바이파워를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쟁사들이 과열 경쟁을 피하고 보수적으로 접근할 것으로 예상돼 적정 수준의 입찰가로도 승산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수익성이 확보된다면 안 들어갈 이유가 없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공항 면세점이 이번 흥행 실패를 위기로 받아들이고 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전 세계 어디에도 이런 임대료 구조를 가진 공항은 없을 것”이라며 “소비 트렌드 변화로 인한 매출 부진과 고환율이란 이중고인 상황에서 인천공항공사가 임대료 조정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것은 국내는 물론 글로벌 면세업계에도 경쟁력을 떨어트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인천공항 면세점이 경쟁력을 찾기 위해선 공항만이 가지는 킬러 콘텐츠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안혜진 시티면세점 대표는 “편의일물적인 제품으로 가격 경쟁만 하거나 문만 열어두면 팔리던 시대는 지났다”며 “일본 공항의 도쿄 바나나처럼 한국 공항에서만 살 수 있는 독자적인 ‘킬러 콘텐츠’를 개발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손종욱 기자 handbell@metroseoul.co.kr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구역에서 여행객들이 오가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지방 주도 성장 등 5개전략 대전환 “국정운영 우선순위 모두 재조정”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국정운영의 우선순위를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재조정하고, 정부가 지닌 자원과 역량을 완전히 재배치해 대한민국의 성장 지도를 다시 그려내겠다”고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신년사에서 밝힌 ‘지방 주도 성장’,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 ‘안전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성장’,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성장’, ‘평화가 뒷받침하는 안정적 성장’ 등 다섯 가지 성장 전략 대전환을 올해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강조하며 과거의 성장 공식에 안주해선 안 된다고 했다.

이날 대통령은 질의응답 과정에서 부동산 정책에서 세금으로 수요 관리를 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으로 남기고 싶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수요 관리와 관련해 실수요는 보호하되 “집을 수십 채, 수백 채씩 모으는 투기적 수요는 규제 대상”이라고 강조하며 토지거래허가제 등 기존 규제 수단에 더해 추가 조치 가능성도 언급했다. <관련기사 6면>

그러나 보유세 등에 대해서는 “세금은 국가 재정을 위한 수단이지 규제 수단으로 전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다만 집값이 정부가 예상한 선을 벗어나 사회적 문제가 된다면 최후의 수단으로 세계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편을 검토할 수 있다면서 여지는 남겼다. 아울러 공급책은 국토교통부에서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또 최근 1400원대 후반의 고환율 기조가 유지되는 데 대해서 “고환율은 대한민국의 독특한 현상은 아니며 정책으로 쉽게 이걸 원상으로 되돌리긴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한다”면서 “책임 당국에 의하면 한두 달 정도 지나면 1400원 전후로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들을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고환율 기조에 대해 “일부에서는 ‘뉴노멀’이라 한다”며 “일본에 비하면 우리는 평가절하가 된 편”이라고 했다. 이어 “일본을 기준으로 그대로 맞추면 1600원은 돼야 한다”며 “엔·달러 연동에 비하면 그래도 잘 견디는 편이라 보달라”고 덧붙였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반도체 관세 포고령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

는다”고 했다. 그 이유로는 “반도체 문제는 대한민국과 대만의 시장 점유율이 80~90% 정도 될 것”이라며 “100%로 관세를 올리면 미국 반도체 물가가 오르는 결과가 오지 않을까 싶다”고 예상했다. 미국이 반도체 관세를 물릴 경우 대부분 미국 물가에 전가될 가능성이 높기에, 트럼프 행정부도 선불리 결정할 수 없다는 의미다.

최근 코스피가 4900포인트까지 오른 데 대해서는 “정상을 찾아가는 중”이라고 진단했다. 한국 주식시장이 펀더멘탈 개선 없이, 반도체 등 일부 종목만 올랐다는 문제제기에 대해 “모두가 다 오르면 좋지만 주식시장은 본질적으로 모두 다 오를 순 없다”면서 “(주식시장) 정상화는 꼭 필요하고, 정상화 과정 중에 있다”고 했다. 특별한 현상 변화가 생기지 않았음에도 주가가 상승한 것은 ‘정상화 과정’이라는 의미다. <6면에 계속>

/서예진 기자 syj@

구윤철 “韓경제 대도약 원년… 정책과제 구체화”

경제부총리, 경제관계장관회의 “中企 해외진출·자본 공급 확대 상생금융 규모 1조→1.7조로”

정부가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상생 성장 및 전략적 수출금융 강화를 핵심 축으로 한 경제 운용 방향을 제시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2026년을 국민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한국 경제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잠재성장을 반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과제를 하나씩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 전략과 관련해 “그동안 대기업 중심으로 환류되던 경제외교 성과를 중소기업 해외진



출 기회와 성장자본 공급확대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진출 프로젝트에 대해 수출금융 한도와 금리를 우대하고 대미투자 프로젝트는 재정 지원을 2배로 늘리겠다”고 했다.

기존의 상생금융 관련해서도 “대기업과 금융권이 협력사를 지원하는 상생금융을 (현행) 1조 원에서 1조7000억 원 규모로 대폭 확대하겠다”며 “대기업이 상생협력에 대해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에 대해 최대 10% 법인세 감면 인센티브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성과공유제를 모든 기업 간 거래로 확대하는 동시에 동반성장평가도 전체 공공기관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중소기업 기술탈취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중대 위법행위에는 과징금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전략적 수출금융”을 언급했다. 그는 “전략수출금융기금을 신설해 방산·원전·플랜트는 물론 장기·저신용 프로젝트까지 금융지원을 확대하겠다. ‘전략수출금융지원법’ 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지역의료 인프라와 관련해선 “17개 시도 권역책임의료기관의 노후 인프라를 신속히 개선해 지역 의료역량을 끌어올리겠다”며 “2026년에 총 2030억 원을 투입해 중환자실 확충과 첨단의료장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전략 ▲전략적 수출금융 지원 강화방안 ▲권역책임의료기관 최종치료 역량 강화방안 등을 논의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메트로 한줄뉴스



▲李 “원전, 필요시 신규 건설 검토…이념 전쟁도 구 안 돼”
▲국힘 법사위원 “장동혁은 죽음 걸고 쌍륙검 외치는데李 뭐하나” /사진 뉴시스

▲與, 李 신년 기자회견에 “대한민국 대도약 비전·의지 느껴”
▲국힘, 오늘 ‘장동혁 단식’ 대책 논의 긴급의총… “총의 모아 중단 설득해야”

▲조국 “이혜훈 자진 사퇴 안 하면 대통령이 지명 철회해야”
▲장동혁 만난 이준석 “건강 먼저 챙기고 투쟁 나서야… 공동투쟁방안 마련할 것”

공정위, 4대 은행 LTV 담합 적발... 2년간 6.8조 이자수익

LTV 정보교환하며 경쟁 회피
차주들의 거래은행 선택권 제한
시정명령·과징금 2720억 부과

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 등 4대 시중 은행이 부동산 담보대출의 핵심 거래조건인 담보인정비율(LTV) 정보를 장기간 서로 교환하며 경쟁을 제한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은행에 대해 시정명령(금지명령)과 함께 총 27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4개 은행은 2022년 3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최소 736건에서 최대 7500건에 이르는 각 사의 LTV 정보를 수시로 공유했다. 다만 제재 대상은 경쟁제한적 정보교환 담합행위 금지 규정이 신설된 개정 공정거래법이 시행된 2021년 12월 이후 행위로 한정했다.

LTV는 부동산 가치 대비 대출 가능 비율로, 대출 가능 금액과 금리, 대출 서비스 수준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거래조건이다. LTV가 낮아질수록 차주는 원하는 규모의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워지고, 추가 담보 제공이나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신용대출로 내몰릴 가능성



문재호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이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4개 대형 시중은행들이 부동산 담보인정비율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활용해 부동산 담보대출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과 과징금 총 2720억 원을 부과한다고 밝히고 있다. /뉴시스

이 커진다. 특히 담보대출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자금지달 여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조사 결과 각 은행의 LTV 담당 실무자들은 필요할 때마다 다른 은행에 요청해 정보를 제공받았고, 법 위반 가능성을 인식한 상태에서 정보교환의 흔적을 적극적으로 제거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무자들이 직접 만나 LTV 정보를 인쇄물 형태로 전달받은 뒤 이를 엑셀 파일로 옮

겨 적고 문서를 파기하는 방식이 반복됐다. 담당자가 바뀌어도 정보교환이 중단되지 않도록 은행별 담당자와 교환 방식이 전·후임자 간에 인수인계되는 등 조직적으로 담합이 이어졌다.

4개 은행은 이렇게 확보한 정보를 내부 의사결정에 체계적으로 활용했다. 특정 지역이나 토지·상가·공장 등 특정 유형 부동산에 대해 자사 LTV가 경쟁 은행보다 높으면 대출 회수 리스크를 이유로 낮추고, 경쟁 은행보다 낮으면 고객

이탈을 우려해 높이는 내부 기준을 운영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방식으로 4대 은행의 LTV가 장기간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됐다고 판단했다.

그 결과 4대 은행은 경쟁 은행의 영업 전략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LTV를 통한 경쟁을 사실상 회피하면서 영업이익을 안정적으로 창출할 수 있었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반면 부동산 담보대출 시장에서 약 60%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4대 시중은행의 LTV가 비슷하게 유지되면서 차주들의 거래은행 선택권은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실제 2023년 기준 4개 은행의 평균 LTV는 정보교환에 참여하지 않은 비담합 은행(기업·농협·부산은행 등)보다 7.5% 포인트 낮았다. 공장·토지 등 기업대출과 연관성이 큰 비주택 부동산의 경우 격차는 8.8%포인트로 더 컸다. 공정위는 은행들이 정보교환을 통해 담보인정비율 산정의 적정성 제고나 신용리스크 감소 효과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과징금은 담보대출을 통해 발생한 이자수익을 기준으로 한 관련 매출액 약 6조 8000억원을 토대로 산정됐다. 가중·감경 사유는 없었다. 은행별 과징금은 ▲하나은행 869억 3100만원 ▲국민은행

697억 4700만원 ▲신한은행 638억 100만원 ▲우리은행 515억 3500만원이다. 다만 이번 담합으로 인한 구체적인 피해액이나 부당이득 규모는 별도로 산정하지 않았다.

심의 과정에서 은행 측은 금융당국의 LTV 규제를 따랐을 뿐이라는 주장을 폈지만, 공정위는 “이번 제재 대상은 가계대출과 기업대출 모두에 적용되는 사항으로, 가계대출에 적용되는 규제 LTV는 일부에 불과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2024년 11월 전원회의 이후 추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재심사가 진행됐고, LTV가 부동산 담보대출에 미치는 영향 여부를 중점적으로 재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재는 2021년 12월 시행된 개정 공정거래법에 신설된 ‘경쟁제한적 정보교환 담합행위 금지’ 규정을 적용한 첫 사례다. 문 국장은 “이번 사건은 금융 분야에서 장기간 유지됐던 경쟁제한적 행태를 적발해 제재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금융은 물론 각 분야에서 정보를 교환하는 방법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윤수 기자 hys@metroseoul.co.kr

한은, 금융·경제 특화 소버린 AI ‘BOKI’ 도입

네이버 ‘하이퍼클로바X’ 기반 구축
조사연구 지원 등 5가지 서비스 제공

한국은행이 네이버와 손잡고 금융·경제 특화 소버린 AI ‘BOKI(Bank Of Korea Intelligence)’를 자체 구축했다. 한은 내부망(on-premise)에 올린 형태로 글로벌 중앙은행 최초 사례다.

한국은행은 21일 네이버의 클라우드 인프라와 LLM 모델 제공을 바탕으로 금융·경제 특화 인공지능(AI)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BOKI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1년 반 동안 협력해 자체 AI를 구축해 왔고, 그 성과를 공개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BOKI가 데이터 보안이 확보된 한은 내부망(on-premise)에 네이버 클라우드의 AI 모형(하이퍼클로바X)을 기반으로 구축됐고 실제 업무에 활용

될 AI 서비스는 한국은행 직원이 자체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공개되는 버전은 5가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조사연구 지원 ▲법규·규정 확인 ▲개인문서 활용을 돕는 업무용 챗봇 ▲금융·경제 특화 번역 ▲한국은행 데이터와 AI를 연계한 금융·경제 데이터 분석 서비스 등이다.

이창용 총재는 한은의 AI 도입이 다른 중앙은행과 구별되는 특징으로 ‘소버린 AI’와 ‘망분리’를 제시했다. 다수 국가가는 글로벌 빅테크 AI 서비스를 활용하면서 데이터 보안만 자체 확보하는 방식을 택하지만, 한국은 자체 모델 개발 역량을 갖춘 국가로서 산업 생태계 육성과 금융·경제 특수성 이해를 위해 소버린 AI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망분리 문제에 대해서는 “AI 활용과 기존 망분리 정책이 양립하기 어려운 단계다”라며 정부 정책의 근본적 변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한국은행은 국가정보원 협력 하에 망개선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돼 소버린 AI 구축과 망개선을 동시에 추진하는 첫 기관이 됐다고 했다.

다만 이 총재는 “이번 달 공개되는 버전은 망분리 사업이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아 인터넷 정보활용에 제약이 있고 서비스 범위가 제한적이다”라며 “오는 3월 망분리 개선이 완료되면 한은 AI의 활용 범위와 성능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창용 총재는 AI 도입이 업무 효율뿐 아니라 조직 문화도 바꿀 것으로 내다봤다. AI 시대에 맞춰 데이터 거버넌스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약 140만 건 내부 문서를 AI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표준화했고, 지식자산을 통합 관리·공유하는 시스템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주희 기자 gh471@

정기선 회장, 4년 연속 ‘다보스포럼’ 참석

(HD현대)

AI·에너지 등 첨단산업 미래 방향성 논의

팔란티어 등 글로벌 파트너십 확대

HD현대 정기선 회장이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2026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다보스포럼)’에 참석해 인공지능(AI)과 에너지 산업의 미래 방향성을 논의했다고 21일 밝혔다.

다보스포럼은 전 세계 정·재계와 학계 리더들이 모여 글로벌 현안을 논의하는 국제회의다. 올해는 ‘대화의 정신’을 주제로 19~23일 열리며, 정 회장은 지난 2023년부터 매년 참석해 올해로 네 번째다.

정 회장은 이번 포럼에서 주요 공식 세션에 참석해 글로벌 리더들과 ▲인공지능(AI)이 만들어낸 산업 전환 ▲에너지 전환의 핵심 축으로 부상한 접근성·회복탄력성·AI의 역할 ▲지정학적 변화에 따른 글로벌 성장 둔화 가능성과 이에 대한 전략적 대응 방안 등을 폭넓게 논의했다. 또 지난해에 이어 ‘에너지 산업 협의회’ 회의에 참석해 글로벌 에너지 시장 환경 변화와 에너지 전환, 에너지 안보, 기술 혁신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아울러 포럼 둘째 날인 20일(현지시간) 세계적 엔터프라이즈 AI 기업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의 창업자 겸 CEO 알렉스 카프와 만나 양사 간 전략적 파트너십 확대에 합의했다.

이번 협력을 계기로 HD현대는 기존 협력을 고도화하는 동시에 HD현대일렉트릭, HD현대로보틱스, HD현대마린솔루션 등 주요 계열사를 포함한 그룹 전반으로 협력 범위를 넓혀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HD현대는 지난 2021년 HD현대오일뱅크를 시작으로 ▲조선·해양 ▲에너지 ▲건설기계 등 핵심



지난해 3월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 사무실에서 정기선 HD현대 회장(오른쪽)과 알렉스 카프 팔란티어 공동창업자 겸 CEO(왼쪽)가 만나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모습. /HD현대

사업에 팔란티어의 빅데이터 솔루션과 인공지능 플랫폼(AIP)을 도입해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해왔다.

정기선 회장은 “이번 파트너십 확대는 그룹 전반의 데이터와 업무 흐름을 하나의 체계로 연결해 더 빠르고 정교한 의사결정으로 이어가기 위한 전환점”이라며 “팔란티어는 세계적 AI 기반 분석 역량을 갖춘 파트너로 HD현대의 디지털 전환에 실행력을 더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알렉스 카프 팔란티어 CEO는 “HD현대는 글로벌 산업을 선도하는 기업”이라며 “양사의 파트너십 확대는 혁신의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HD현대의 경쟁력 제고를 뒷받침하고 지속적인 가치를 함께 창출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HD현대는 향후 팔란티어와 공동으로 ‘센터 오브 엑셀런스(CoE)’를 구축해 임직원의 고급 데이터 분석 및 AI 활용 역량을 체계화하고 AI 기반 혁신을 이끄는 성장 동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유혜은 기자 dhalehdhale@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유죄... 징역 23년 선고

12·3 비상계엄 재판

한 전 총리 “법원 판단 겸허히 수용”

법원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사진)에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1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하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 은닉·손상, 위증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하위작성공문서 행사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한 전 총리는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막아야 할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않고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책

임을 부여받은 사람으로 헌법에 따른 모든 노력을 해야 한다”며 “그러나 피고인은 12·3 내란의 진실을 밝히기는커녕, 비상계엄을 은닉하고 적법절차로 보이기 위해 하위공문서를 작성하고 폐기하며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재판장이 중형을 선고하자 한 전 총리는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한 전 총리를 법정구속했다.

/뉴시스

AI 반도체 가격 폭등… 스마트폰·노트북 가격 인상 불가피

CES서 IT기기 가격 인상 예고
삼성·LG, 노트북 가격 50만원 상승
고환율 여파로 소비자 물가 부담 가중
상반기까지 가격 인상 지속될 전망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요 증가에 따른 반도체 가격 상승이 스마트폰과 노트북 등 주요 IT기기 가격 인상을 불러오면서 소비자들의 물가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반도체 시장은 메모리 반도체를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하면서 2026년 1월 기준 DDR5 등 고성능 메모리 가격은 30만원선까지 상승하면서 전년 대비 5배 가량 증가한 상황이다. 여기에 고환율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원화 가치 하락 현상도 가격 인상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27일 출시되는 삼성전자 2026년형 노트북 ‘갤럭시 북6’ 시리즈 가격은 341만원부터 시작한다. 프로 모델 기준 14인치 241만원, 16인치 351만원이다. 전작인 갤럭시 북5 프로 시리즈가 176만



삼성전자 모델이 갤럭시 북6 프로를 소개하고 있다.

8000~280만8000원이었다. 특히 갤럭시 북5 시리즈가 갤럭시 북4보다 최대 18만원 인화된 가격으로 출시된 점을 고려하면 체감 인상 폭은 더 크다는 지적이다.

LG전자도 상황은 비슷하다. 신형 노트북 ‘LG 그램 프로 AI 2026’의 16인치 출고가는 314만원으로 비슷한 사양을 적용한 전작보다 50만원 가량 가격이 인상됐다.

고환율도 가격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

고 있다. 중앙처리장치(CPU)나 그래픽 처리장치(GPU)를 인텔, 엔비디아 등 미국 빅테크 기업에서 수입한다는 점에서 가격 부담은 확대되는 상황이다.

이같은 IT 기기의 가격 인상은 노트북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으로 확산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 가격 급등과 관세 정책 변화에 따른 수익성 악화 문제로 스마트폰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노태문 삼성전자 사장은 지난 5일



LG 전자 26년형 그램.

CES 2026 기자간담회에서 “주요 부품 재료비, 특히 메모리 가격 상승이 가장 큰 우려”라며 “제품 가격에 어떤 형태로든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사실상 가격 인상을 공식화했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출시한 갤럭시 S25의 가격을 동결(일반 115만5000원·플러스 135만3000원·울트라 169만8400원)했지만 내달 공개할 갤럭시 S26 시리즈의 가격은 전작 대비 일반 모델은 약 10만원, 울트라 모델은

약 15만원 가량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애플도 올해 출시하는 아이폰 18 프로와 맥스 라인업 가격 인상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출시한 아이폰 17 일반·프로맥스 모델은 출고가를 동결한 바 있다.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올해 상반기까지 스마트폰 부품 원가(BOM)가 전년 대비 최대 15%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2026년은 메모리 부족 여파로 전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이 2.1%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제조사들에게 쉽지 않은 한 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 SK, 마이크론 등 수출 개선을 통해 AI 메모리와 범용 메모리 생산 확대에 집중하고 있지만 폭발적인 메모리 수요가 전체 산업 공급 능력을 넘어서는 상태”라며 “내년 상반기까지 메모리 반도체 가격 인상과 함께 제품 품귀 현상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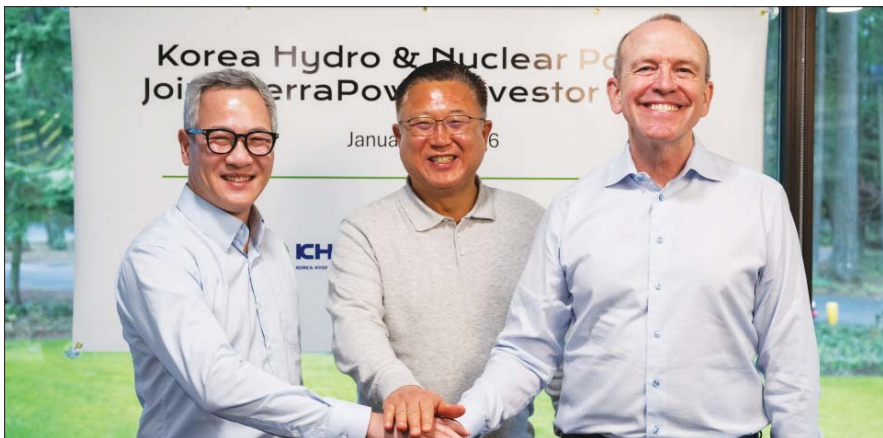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SK이노, 테라파워 지분 매각… 글로벌 SMR 시장 공략

한수원, 첫 공기업 SMR 참여
테라파워, 나트륨 SMR 기술 개발
3자 협력, SMR 사업 본격 추진
SMR, 전력수요 급증 대응 가능성 ↑

SK이노베이션이 보유 중인 미국 차세대 소형모듈원전(SMR) 개발사 테라파워 지분 일부를 한수원에 매각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투자는 국내 에너지 공기업이 세계적 SMR 개발사에 직접 투자한 첫 사례다. 한수원은 지난해 12월 테라파워 지분 인수와 관련한 미국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TUS) 심사를 마무리하며 글로벌 SMR 시장 참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SK

이노베이션은 21일 보유 중이던 테라파워 지분 일부를 한수원에 매각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투자는 국내 에너지 공기업이 세계적 SMR 개발사에 직접 투자한 첫 사례다. 한수원은 지난해 12월 테라파워 지분 인수와 관련한 미국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TUS) 심사를 마무리하며 글로벌 SMR 시장 참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SK



김무환 SK이노베이션 에너지설루션사업단장(왼쪽부터)과 박인식 한수원 수출사업본부장, 크리스 르베크 테라파워 최고경영자(CEO)가 지난 15일(현지시간) 미국 시애틀 테라파워 본사에서 SMR 협력 미팅을 진행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

이노베이션과 SK(株)는 2022년 8월 테라파워에 투자해 2대 주주에 올랐으며 이번 일부 지분 매각 이후에도 2대 주주 지위는 유지한다.

3사는 각자의 강점을 결합해 글로벌 SMR 생태계 구축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

이다. SK이노베이션은 에너지·소재 분야의 글로벌 사업 경험을, 한수원은 원전 건설·운영 노하우를, 테라파워는 차세대 SMR 기술력을 맡아 시너지를 창출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국내외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전력 수요 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통합 에너지 설루션을 제공한다. SK이노베이션과 한수원, 테라파워는 2023년 4월 ‘SMR 개발 및 실증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이후 협력을 이어왔으며 이번 지분 참여를 계기로 미국 및 해외 SMR 건설, 국내 SMR 도입을 위한 사업화 본계약도 순차적으로 체결할 예정이다.

테라파워는 빌 게이츠가 2008년 설립한 차세대 원전 개발 기업으로, 기가와트급 에너지저장시스템을 결합한 나트륨 원자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 와이오밍주에서는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세계 최초 상업용 나트륨 SMR 플랜트를 건설 중이다. 첨단 기술력과 높은 안전성과 친환경성을 갖춘 테라파워 SMR은 AI 데이터센터 확산에 따른 전력 수요 급증을 해결할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SMR은 모듈형 설계를 기반으로 건설 기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지역·단계

별 증설이 가능해 전력 수요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 특히 테라파워의 나트륨 SMR은 에너지저장장치를 활용해 발전량을 조절하는 부하 추종 운전이 가능해 재생에너지와의 보완적 시너지가 크다는 평가를 받는다.

업계에서는 이번 투자를 단순 협력을 넘어 전략적 투자로 보고 있다. 지분 투자를 통해 수익원을 다변화하는 동시에 핵심 기술과 지식재산권(IP)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려는 목적이라는 분석이다. 원전 기술을 활용하는 기업과 국가 입장에서 IP 확보는 장기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꼽힌다. 과거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 분쟁을 겪은 점을 고려하면 이번 지분 참여는 향후 원전 수출과 해외 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술·권리 이슈를 사전에 관리하려는 대응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원관희 기자 wkh@

‘고영향 AI’ 기준 모호해 기업 불확실성·부담 가중

인공지능 기본법
〈下〉산업계 ‘이중 규제’ 우려

기업 혁신 속도 저하시킬 가능성
기술 발전 속도와 맞지 않는 규제

2026년 1월 22일,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먼저 인공지능(AI) 기본법을 전면 시행하는 국가가 된다. 정부는 이를 산업 진흥과 신뢰 조성을 위한 선제적 제도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산업 현장에서는 기술의 작동 방식과 시장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탁상공론식 규제’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 AI 기본법을 바라보는 시각차가 크다.

21일 〈메트로경제 신문〉 취재에 따르면, 산업계와 법조계에서는 이번 AI 기본법이 추상적 개념과 포괄적 규제에 기대 설계되면서 기업 활동 전반에 새로운 불확실성을 안길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핵심 규제 장치로 꼽히는 ‘고영향 AI’ 개념을 두고 해석의 여지가 지나치게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안에서 정의하는 고영향 AI는 국민의 생명, 신체,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시스템이다. 정부는 에너지 공급, 보건의료, 범죄 수사, 채

용, 대출 심사, 교통 등 10개 영역을 고영향 AI 적용 분야로 지정했다.

문제는 무엇이 ‘중대한 영향’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정부는 수치화된 기준 대신 영역별 질문지를 담은 ‘흐름도’를 통해 종합 판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기업 입장에서 규제의 적용 여부를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운 구조다. 오작동 시 피해 규모나 인공지능의 독자적 판단 여부 등을 고려한다고 설명하지만, 법적 안정성이 중요한 기업 경영 환경에서는 이러한 추상적 잣대 자체가 리스크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고영향 AI로 분류되는 순간, 사업자에 부과되는 부담은 급격히 커진다. 해당 서비스가 AI에 의해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하는 투명성 확보 의무는 물론, 위험 관리 시스템 구축과 인적 감독 체계 마련 등 비용 부담이 큰 안전성 관리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특히 의료기기처럼 이미 다수의 개별 법령에 따라 강한 규제를 받는 산업군은 AI 기본법까지 더해지며 ‘이중 규제’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데이터 학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문제 역시 여전히 미해결 과제다. 대규모 학습이 필수적인 AI 특성상 저작물 활용을 둘러싼 갈등은 불가피하지만, 현재로서는 ‘선 활용, 후 협상’ 방식 외에 뚜렷한 대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창작

자와 기업 간 합리적인 보상 기준이 마련되지 않는 한, 분쟁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해외 빅테크 기업과의 형평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법안은 구글이나 오픈AI 같은 해외 기업에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했지만, 이는 실질적인 규제라기보다 간접적인 관리에 그친다는 평가가 많다. 국내 기업은 법 조항에 따라 사실조사와 표시 의무를 직접 이행해야 하는 반면, 해외 기업은 대리인을 통해 규제의 부담을 상대적으로 비껴갈 여지가 크다는 것이다.

딥페이크나 허위 정보 유통 등 해악 발 리스크에 대한 실효적 대응은 부족한 채, 국내 기업만 규제의 부담을 떠안는 구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서현 기자 seoh@

中企·스타트업, 정부확보 GPU ‘우선 공급’… 비용 부담도 ↓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전략

中企-대기업, 美 진출 시 지원 2배
상생금융·상생협력기금 공급도

온라인플랫폼社 동반성장지수 평가
기술 탈취하면 최대 과징금 50억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은 정부가 올해 확보하는 GPU 약 1만장 가운데 약 30%를 우선적으로 받아 시장 가격보다 5~10% 싸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유통, 숙박, 배달 등 온라인플랫폼 기업도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에 포함한다. 동반성장평가 대상 공공기관을 2030년까지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대한다. 기술을 탈취한 기업에 대해 최대 5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정부는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계획된 GPU 확보분 총 5만 2000장 가운데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으로 마련할 수 있는 1만장 중 3000장 가량을 중소기업, 스타트업에 우선 배분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등이 국가 AI 컴퓨팅센터를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대기업 등이 끌고 중소기업이 미치는 상생금융 프로그램, 상생협력기금도 대폭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확대한다.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함께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추진을 위해 미국으로 진출하는 경우 정부 지원을 두배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대·중소기업이 중장기 프로젝트로 해외 동반진출시 3년간 최대 10억원을 지원했지만 이번 미국 진출시 3년간 최대 20억원을, 그 외 진출 국가에 대해선 15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기업의 기여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자본 공급도 늘린다. 대기업·금융권이 출연하고, 보증기관이 연계해 협력사 등을 지원하는 상생금융을 1조7000억원 규모로 공급한다.

현대·기아차와 우리·국민은행이 출연하고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무역보험공사 등이 보증을 지원하는 상생금

융 프로그램은 1조원에서 1조3000억원 규모로 확대된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출연(10억원)하고 신보가 보증하는 협력사 상생 프로그램도 150억원 규모로 신설한다. 포스코(50억원)·기업은행(150억원)이 출연하고 무보가 보증하는 4000억원 규모의 철강산업 수출공급망 우대 자금도 공급한다.

상생협력기금은 향후 5년(2026~2030년)간 1조5000억원 이상으로 조성한다. 이를 위해 정부매칭 사업 비중을 확대하고 금융회사와 방산 체계기업(대기업)에는 상생 관련 평가 우대 등 맞춤형 인센티브 등을 부여한다.

전통 제조업 중심이던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생태계를 온라인·플랫폼, 금융, 방산 등으로 확장하는 방안도 추진

한다.

배달플랫폼의 최대대우 요구 등 독과점 지위 남용 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입점업체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을 검토한다. 2026년부터 온라인플랫폼 기업을 대상으로 동반성장지수 평가를 실시하고, 금융회사와 중소기업 간 상생수준을 평가하는 상생금융지수도 도입한다.

방산 분야의 상생수준평가를 올해 신설하고 상생협력 수준별 인센티브를 마련한다. 상생수준평가는 한화, 현대로템, LIG 넥스원 등 15개사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원전 중·중견기업의 공급망 강화와 해외진출을 위한 컨설팅·인증·마케팅 비용은 올해 45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대기업·협력업체가 공동으로 탄소감축을 위해 투자하는 경우 지원하는 대출공급 한도액은 현행 최대 2조원에서 2조6000억원까지 확대한다.

지금까지 수·위탁 거래에만 적용되던 성과공유제는 올해 상반기 중 플랫폼·유통·대리점 등 모든 기업 간 거래로 확대한다. 성과공유 유형 중 수탁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현금 공유와 현금성 공유(지식재산권 등) 유형을 우대한다. 이를 위해 동반성장 평가시 현금·현금성 공유액의 2배를 실적으로 인정(현재는 공유액 만큼만 인정)한다.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신용을 이용해 협력사가 결제일에 납품 대금을 현금화

할 수 있는 상생결제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상생결제를 통해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중·중견기업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혜택은 2028년까지 연장한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시 상생결제 지급에 대한 정량평가(0.3점)도 도입한다.

주요 원자재 가격 변동분을 납품대금에 반영·조정하는 납품대금연동제 적용 대상은 주요 원재료에서 주요 에너지(전기·연료 등) 경비까지 확대한다. 납품대금연동제 연동 우수기업에 대한 수·위탁 직권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대기업의 기술탈취에 대한 행정처벌과 제재도 강화한다. 현재 시정권고만 하고 있는 행정제재를 시정명령·벌점 등으로 확대하고,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50억원의 대규모 과징금 부과를 추진한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상생 성장전략’은 ▲수출·수주 성과 중소기업 공유·확산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성과 환류 경로 강화 ▲상생협력의 틀 전통 제조업에서 온라인플랫폼, 금융, 방산, 지역 등 생태계 전반으로 확장을 중심으로 추진한다”면서 “관계부처 및 유관 협·단체와 긴밀히 협조해 주요 내용을 국민과 기업에 신속히 알리고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삼바, 초격차 생산능력·수주 성과 가시화… 연간 영업이익 2조 달성

지난해 CDMO 기업으로 체제 전환
생산능력 78.5만리터… 지속 확대 예정
올해 매출 전망치 15~20% 성장 제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연간 매출 4조 5000억원대 돌파와 함께 연간 영업이익 2조원 시대를 열었다. 지난해 인적분할을 통해 순수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으로 체제를 전환하며 새 청사진을 펼친 가운데, 국내 바이오 업계 최초 실적으로 고성장을 달성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해 4분기 실적으로 매출 1조2857억원, 영업이익 5283억원을 기록했다고 21일 공시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항체·약물접합체(ADC) 생산 시설 전경. /삼성바이오로직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35%, 영업이익은 68% 증가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연간 실적은 사상

최대 수준으로 경신했다. 매출은 4조 5570억원, 영업이익은 2조692억원이다. 지난해 연간 실적 대비 매출은 30%, 영업이익은 57% 커졌다.

이러한 호실적 달성에는 초격차 생산능력 유지, 글로벌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한 수주 성과 등이 뒷받침됐다.

우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제1공장의 4공장 램프 업(Ramp up)과 1~3공장의 안정적 풀가동에 힘입은 결과라는 분석을 내놨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현재 총 78만5000리터의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오는 2027년 6공장을 준공해 생산 능력을 총 96만5000리터

까지 늘릴 계획이다. 6공장은 5공장보다 일 규모인 18만 리터다.

아울러 고객 중심 경영을 바탕으로 뚜렷한 수주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에는 1조원 규모 이상의 계약을 3건 체결하는 등 연간 수주액 6조원을 넘겼다.

이와 함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전략적 투자도 차질 없이 이행했다. 지난해 말 미국 록빌 공장 인수, 국내 송도에 제3바이오캠퍼스 부지 추가 확보 등을 연말에 추진해 미래 사업 기반을 다졌다.

미국 내 첫 생산 거점 마련으로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과 다양해지는 고

객사 요구에 적극 대응한다. 또 제3바이오 캠퍼스에는 ▲항체접합치료제(AXC) ▲항체백신 ▲세포·유전자치료제(CGT) 등 차세대 바이오의약품 생산 시설을 짓는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26년에도 순수 CDMO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바탕으로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2026년 매출 전망치를 전년 대비 15~20% 성장으로 제시했다. 해당 전망치는 미국 록빌 공장 인수에 따른 매출 기여분이 반영되지 않았으며, 인수 완료 이후 관련 실적을 반영한 전망치를 추가로 안내할 예정이다. /이청하 기자 mlee236@

대한상의 “미래 유통산업 핵심은 ‘CONNECT 전략’”

‘올해 유통시장 소비 트렌드’ 보고서
순환, 옴니허브 등 핵심 키워드 제시

대한상공회의소는 미래 유통산업의 핵심 성장 키워드로 ‘C.O.N.N.E.C.T’를 선정하며 “앞으로의 경쟁력은 고객과 매장, 인공지능(AI)과 경험을 얼마나 정교하게 연결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22일 발간한 ‘2026유통시장 소비 트렌드’ 보고서를 통해 “급변하는 소비 트렌드와 업종 간 경계가 무너진 무한 경쟁 환경 속에서 유통은 단순히 덩치를 키워 성장하는 단계를 넘어섰다”고 진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순환’(C)는 더 많이 파는 시대에서 더 오래 쓰는 순환의 시대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유통 경쟁력의 기준이 판매량에서 친환경과 지속 가능성으로 이동하면서 환경 규범을 비즈니스에 내재화하는 기업이 시장 주도권을 쥐고 있다. 실제 국내 패션기업과 백화점들은 옷을 직접 매입해 재판매하며 자원 순환을 통해 탄소 배출을 줄이는 동시에 MZ세대의 가치소비 트렌드를 공략하고 있다. 수출기업들 역시 유럽의 디지털 제품 여권(DPP) 도입 등 글로벌 환경 규범에 발맞춰 제품의 생산부터 유통, 재활용까지 관리하는 등 지속 가능

한 혁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옴니허브’(O)는 동네 매장을 최첨단 배송기지로 연결하는 전략이다. 대형마트들은 매장 안에 작은 물류센터를 구축해 주문 즉시 상품을 출고하며 배송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췄다. 편의점과 동네 슈퍼(SSM) 역시 배달 플랫폼과 손잡고 ‘집 앞 배송’을 책임지는 도시형 배송 거점으로 변신 중이다.

‘신시장’(N)은 K-컬처를 기반으로 한 글로벌 확장 전략이다. 유통기업들은 내수에 머무르지 않고 한국형 쇼핑 플랫폼과 문화를 함께 수출하며 글로벌 영토를 넓히고 있다. 국내 대형 유통사가 배

트남 하노이에 한국형 복합몰을 조성한 사례나, H&B 유통사가 온라인 플랫폼만으로 150여 개국에 K-뷰티와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새로운 가치’(N)는 극단적으로 양극화된 소비 성향에 대한 대응이다. 생필품은 반값에 구매하면서도 취미와 취향에는 과감히 지갑을 여는 소비 패턴이 확산되면서 편의점과 대형마트는 초저가 상품과 프리미엄 상품을 동시에 강화하고 있다.

‘경험’(E)은 오프라인 매장의 역할 변화에 주목한다. 매장은 물건을 파는 공간이 아니라 시간을 소비하는 장소로 전환되고 있으며 고객 체류 시간이 경쟁력의 핵심 지표로 떠올랐다.

‘고객가치’(C)와 관련해서는 고객 생

애 가치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소수의 충성 고객이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단골을 넘어 팬을 만드는 관계 경영이 핵심 전략으로 부상했다. 백화점의 2030 전용 VIP 프로그램이나 온라인 유통사의 취향맞춤형 콘텐츠 제공은 이러한 흐름을 보여준다.

마지막 ‘기술’(T)에서는 AI 기반 개인화 기술이다. AI가 고객의 취향을 선제적으로 파악해 상품을 제안하는 ‘쇼핑 비서’가 유통의 풍경을 바꾸고 있다. 글로벌 기업 아마존은 전체 매출의 30% 이상을 AI 추천으로 만들어낸 만큼 정교한 개인화 엔진을 가동하고 있으며 네이버 역시 검색 없이도 취향에 딱 맞는 상품을 제안하는 시스템을 선보였다.

/원관희 기자 wkh@

금융으로 세상을 **이**롭게



Jump High! 비상하는 당신의 꿈을 지원합니다

신한금융그룹은
대한민국 동계 스포츠의 발전을 위해
스키·스노보드 국가대표팀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스노보드 국가대표 이채운

- 2025 하얼빈 아시안게임 슬로프스타일 1위
- 2024 제4회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슬로프스타일 1위 / 하프파이프 1위

스노보드 국가대표 최가은

- 2025-26 FIS 스노보드 월드컵 하프파이프 2연속 우승
- 2023 X Games Aspen 스노보드 슈퍼파이프 1위

프리스타일 스키 국가대표 이승훈

- 2025 하얼빈 아시안게임 하프파이프 1위
- 2023-24 랠거리 월드컵 2차 3위

사진 : 연합뉴스

신한은행 신한카드 신한투자증권 신한라이프 신한캐피탈 신한자산운용 제주은행 신한저축은행
신한자산신탁 신한DS 신한펀드파트너스 신한리츠운용 신한벤처투자 신한EZ손해보험

+ 더 쉽고 편안한, 더 새로운 금융



신한금융그룹

173분간 25개 질문 답한李 “檢 보완수사권 예외적 필요”

이재명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검찰 수사·기소 분리… 개혁 의지
北 비핵화 이상적이지만 당장 어려워
종교계 정치개입 문제 뿌리 뽑아야”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을 갖고 무려 173분 동안 25개의 질문을 답하며 집권 2년 차 국정운영 구상과 각종 현안에 대해 솔직한 입장을 드러냈다. 당초 예고한 90분보다 2배 가량 회견을 진행한 것으로, 관심을 끌던 이슈 중 하나인 검찰 보완수사권과 관련해서도 일부 필요성을 인정하는 등 효율성을 중시하는 태도도 보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취임 후 세 번째 기자회견을 가졌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30일·100일 기자회견을 진행한 바 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가장 관심을 끈 것은 검찰 개혁 관련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도 검찰 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검찰 개혁 역시 확실하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질의응답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20년 넘게 이어진 검찰과 본인의 악연을 소개하며 “제가 검찰에 가장 많이 당했다. 기소된 것만 20건은 된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검찰이 하도 저지른 업보가 많아서, 뭐든지 믿고 믿을 수 없는 ‘마녀’가 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든다”고 솔직한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이) ‘사건을 덮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돈을 벌고, 사건을 만들어서 성공한다’는 얘기가 있다”며 “이걸 너무 많이 해서 결국 온 국민이 의심하고 ‘검사는 아무 것도 하지 마’가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 이것은 당연한 대원칙”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최근 논란이 된 보완수사권 문제를 두고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 대통령은 “(보완수사권이)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 공소시효가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보완수사가 전면 금지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며 특수한 경우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허용할 필요성을 일부 인정했다. 이어 “남용의 가능성을 봉쇄해야 하지만 효율성이 제 거돼서도 안 된다”며 “(보완수사권 문제는) 더 연구해야 해서 미정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목표에 대해 “당과 국회, 정부가 국민과 함께 토론하

고 그 결과를 전문가들이 검증해서, (검찰청 폐지 시점인) 10월까지의 여유가 있으니 서두르다 체하지 말고 충분히 의논하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 비핵화가 가장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당장은 어렵다는 견해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비핵화해야 하는데, 가장 이상적이기는 하지만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 전략은 ‘(북한이 핵을 포기할 때까지) 기다려 보자, 견디자’였다. 이상을 꿈꾸면서 현실을 외면했다”며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핵무기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했다.

또 최근 북한에서 지적한 민간 무기 기 침투 사건에 대해서는 “경제성장 발전에 가장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대화하고 유화적인 조처도 하고 있지만 (북한) 반응이 없다”며 “그 와중에 무기

기 사건이 터져서 이재명 정부도 믿을 수가 없겠다는 핑곗거리를 만든 것이다. 우리 입장에서 때는 엄중한 사안이고 철저히 조사하고 대책을 세워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종교계의 정치 개입 문제에 대해서는 “조직적으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지만 최근 그 현상이 심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종교적 신념과 정치적 선호가 결합해 버리면 양보가 없다. 나라가 망하는 길로, 이걸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조직적으로 종교적 신념을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그렇게 하면 제재가 엄정하다는 걸 반드시 이번 기회에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그는 “원래 처벌 법률 만드는 걸 별로 안 좋아하고,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는 이게 얼마나 나쁜 짓인지, 위험한 짓인지를 잘 모르는

것 같다”며 “마치 권리인 줄 아는데, 개인이 정치적 선호와 종교적 신념을 갖는 것은 상관없지만 종교 시스템 자체를 정치적 수단으로 삼는 건 절대 허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문제의식을 가지는 부분도 있어서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한다”면서도 인사청문회가 무산된 것은 아쉽다고 밝혔다. 해명의 장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다.

다만 청와대가 이 후보자에 대해 사전에 인사 검증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 후보자가 보좌관에게 갑질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우리가 어떻게 아나”라며 “기사처럼 써놓은 게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쪽(보수) 진영에서 공천을 무려 5번을 받아서 3번이나 국회의원에 당선됐고, 아무런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던 분”이라고 반박했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李 “용인 반도체 이전 부탁한다고 되지않아”

》1면 ‘대한민국의 성장 지도’서 계속

신규원자력발전소 신설 가능성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안전 문제를 포함해 (신설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전 문제가 너무 정치 의제화됐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용인 반도체 클러

스터’와 관련해 기업 입지 문제를 두고 전력이나 용수 등에 관련한 갈등이 생기는 데 대해 “정치권에서 기업들에게 부탁한다고 해서 (기업 이동이) 되는 건 아니다”라며 “(기업에게는) 경제적 요인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전력이나 용수 문제 등을 현실적인 문제를 언급해야 한다면서 “이런 점들을 잘 설득하고 이해하게 하고, 또 다른 데 가서 해도 지장이 없거나 손해가 안 나도록 만드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서예진 기자

이혜훈 청문회 불발되나… 여야 여전히 대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시한 지나
李 대통령 “본인 얘기 들어봐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인 21일에도 여전히 여야는 자료 제출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지난 19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민주당이 이 후보자의 각종 의혹을 청문회를 통해 검증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가 의혹을 검증하기에 매우 부족하다며 청문회를 열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당과 전선 정당에서 총선 공천을 여러번 받은 이 후보자가 이재명 정부에 입각하려고 하나 나마를 목표로 공세를 벌여왔다. 국민의힘 소속 임이자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장은 재경위 간사에게 청문회 개최를 위해 협의를 진행할 것을 요청했으나, 19일 청문회 정회 이후 청문회는 열리지 않았다. 국민의힘 박수영 재경위 간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후보자 측이 부정청약 의혹과 증여세 의혹 등에 관련한 핵심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박 간사는 “요청한 91개 자료 중 (부정청약 관련) 장남의 (결혼 이후) 실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기하고 있다.

/뉴시스

거주 여부, 증여세, 자녀 유학 중 해외 송금내역 자료 등을 못 내겠다고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후보자는 국회가 요구하는 자료를 못 내겠다는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라며 “오늘 내겠다고 하는 자료들까지 다 해서 제출한 자료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이 되는지 의논한 뒤 청문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청문회 개최 시기와 관련해서 “여당 측에서는 오늘 대통령 기자회견도 있고, 내일 기자회견 후속 조치 발표도 있기 때문에 청문회 기사가 자신들의 흥

보 기회를 덮을 우려가 있어 오늘과 내일은 피하는 게 좋겠다는 의사를 보여줬다”며 “모레(금요일) 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많은 만큼, 인사청문회를 개최해 여야 의원들의 철저한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한다”며 “국민들께서 문제의식을 가지는 부분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아쉬운 점은, 본인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들어볼 기회를 갖고, 청문 과정을 지켜본 국민들의 판단을 제가 들어본 뒤 결정하고 싶었다는 것”이라며 “그 기회마저 봉쇄돼 본인도 아쉽겠지만 저도 참 아쉽다”라고 덧붙였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SBS라디오에 출연해 “인사청문특위, 원내지도부 등을 중심으로 어떻게든 청문회를 해보려는 노력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박수석대변인은 민주당 단독 청문회 개최를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그런 적 없다”며 선을 그었다.

/박태홍 기자 pth7285@

‘단식 일주일’張… 강성충 중심 결집 분위기

한동훈 제명 결정 잠시 보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쌍특검(민주당 공천헌금 수수·통일교 정교유착 의혹 특검) 도입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에 돌입한 지 일주일째 되는 21일, 단식 전 국민의힘의 최대 이슈였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제명 결정은 잠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당이 강성파를 중심으로 일시적인 결집 효과를 누리는 모양새다.

단식 농성이 장기화됨에 따라 장 대표의 건강은 나빠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전날(20일) 밤 공지를 통해 “20일 오후부터 산소포화도가 위험 수치 이하로 낮아져 의료진이 의료기관 긴급 이송을 권고했으나, 본인의 거부 의사로 의료용 산소발생기를 활용해 단식현장에서 긴급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명심하라. 특검은 거부할 수 있어도 민심은 거부할 수 없다”며 “나는 여기서 묻히고, 민주당은 민심에 묻힐 것”이라고 적었다.

국민의힘은 장 대표의 건강이 악화됨에 따라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방안을 강구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당 초선·비례 의원이 송 원내대표와 회동한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이) 비상의를 제안했다. 장 대표가



통일교·공천헌금 ‘쌍특검’ 수용을 요구하며 단식 중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1일 국회 로텐더홀 단식 농성장에서 산소 발생기를 착용한 채 누워있다.

/뉴시스

건강이 너무 악화됐는데, 국회에서 안 나가신다. 병원에 가서야 한다. 지금 상태가 아주 안 좋다”며 “의료진은 3~4일 전부터 병원으로 옮기라고 했다”고 전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로 내정된 나경원 의원의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1야당 대표가 이렇게 죽음을 걸고 외치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 뭐 하고 있나”라며 “(신년 기자회견에서) ‘성장 전략 대전환’ 하면서 또 다시 말 잔치하고 있다. 흑세무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적어도 정부수석이라도 보내서 우리 야당 당 대표의 이야기를 직접 듣게 하고 어떻게 해법을 마련해야 될 것인지 논의해야 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태홍 기자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하나 모두 성장 프로젝트

하나금융그룹은 생산적 금융을 실천하며
모두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의 내일을 만들겠습니다.

기업의 도전이 멈추지 않도록
산업의 성장이 이어지도록
대한민국 경제가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도록

하나금융그룹이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고도화를 위한
중소·중견기업 지원

핵심 성장 산업 지원
K-밸류체인 강화

신재생에너지
에너지고속도로

[하나 모두 성장 프로젝트]

하나금융그룹은 국가 미래 성장과 민생 안정 지원을 위해 2030년까지 5년간 총 100조원을 투입하여 생산적 금융과 포용 금융을 실천하겠습니다

● 신재생에너지·에너지고속도로

● 핵심 성장 산업 지원 · K-밸류체인 강화

● 산업단지 고도화를 위한 중소·중견기업 지원

 하나금융그룹

|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 하나자산신탁 |
| 하나자산운용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핀크 |

“AI 확장·스테이블코인 사업 박차… 혁신경영으로 1위 수성”

2026 카드사 생존전략

삼성카드

작년 3분기 누적당기순익 4973억
전년비 감소했지만 업계 1위 굳혀
올해 ‘뉴 모니모’ 중심 신기술 확산
PLCC 등 유통사와 협업 가능성도

삼성카드의 새해 키워드는 ‘혁신 경영’이다. 김이태 삼성카드 사장은 신년사를 통해 “올해 형식과 틀을 바꾸는 ‘트랜스포메이션(Transformation)’의 도전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위 자리를 굳히기 위해 더 과감한 혁신을 이어가겠다는 목표다.

◆ 불확실한 경영환경… ‘생존’ 문제

삼성카드의 지난해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은 4973억원으로, 순이익 기준 업계 1위를 기록했다. 신한카드(3804억원)와 순이익 격차를 벌리며 왕좌를 탈환했다. 지난해 3분기 누적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6.4% 감소했지만 업계 1위에 오른 것이다. 이를 두고 일



김이태 삼성카드 사장. /삼성카드

각에서는 카드업계의 기존 수익 모델이 정체 국면에 들어섰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김 사장이 올해 완벽한 체질 개선을 주문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김 사장은 신년사에서 “불확실한 경영 환경에서 생존해야 한다”면서 “기존 수익 구조에 안주하지 않고 전방위적인 혁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 신기술 도입·새 비즈니스 모델 개발

김 사장은 생존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으로 신기술 도입과 더불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언급했다. 올해 인공지능(AI) 기술을 확장하고 스테이블 코인 관련 사업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풀이된다.

삼성카드는 올해 모니모를 중심으로 신기술을 적용·확산할 것으로 관측된다. 모니모는 삼성금융사 각각의 애플리케이션(앱) 서비스를 하나로 모은 통합형 앱으로, 지난 2022년에 출시됐다. 출시 2년 4개월 만에 1000만 회원을 돌파했으며 지난해 10월 월이용자수(MAU) 760만 명을 기록했다. 이 같은 인기로 힘입어 삼성카드는 지난해 12월 모니모를 ‘뉴(NEW) 모니모’로 개편, 고객별 맞춤 기능을 추가했다.

삼성카드 한상민 모니모담당 상무는 “앞으로 인공지능(AI)·스테이블코인 등 새로운 기술을 접목해 자산관리·라이프케어 등 고객이 가장 필요한 부문에서 모니모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 전방위적 협업 의지

김 사장은 올해 다양한 업권과 전방위적인 협업 계획도 시사했다. 김 사장은 “업의 경계가 사라지고 있는 경쟁 환

경 속에서 전방위적 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유통사와 협업을 통한 상업자표시전용카드(PLCC) 확대, 스테이블 코인 관련 테크 기업과의 협업 등의 가능성이 거론된다.

현재도 삼성카드는 PLCC 부문 유통사들과의 협업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삼성카드는 지난해 하반기에만 스타벅스, 번개장터, G마켓, 오아시스 등과 손잡고 PLCC 카드를 잇달아 출시한 바 있다. 여기에 올해 무신사와의 협업까지 더해지면서 삼성카드가 PLCC 시장의 새로운 강자로 주목받고 있다.

올해도 유통사와 협업을 통한 삼성카드의 PLCC 확대 전략은 유효할 전망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2020년 전후 화제를 모았던 PLCC 시장이 지난해부터 제휴 계약이 만료되면서 판도가 변화하는 모습”이라며 “현재 PLCC 시장의 선두 주자로 나섰던 배달의민족, 스타벅스 등이 계약 만료 후 각각 신한카드와 삼성카드의 손을 잡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양재영 NH농협금융 리스크관리부부장(앞줄 왼쪽 네번째)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NH농협금융

NH농협금융지주

계열사 CRO 등 참여 리스크관리 전략회의

NH농협금융지주는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NH투자증권 본사 회의실에서 NH농협금융 전 계열사 위험관리최고책임자(CRO)와 리스크 실무책임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농협금융 리스크관리 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경제·금융시장 전망을 중심으로, 리스크관리 특강과 함께 올해 자회사별 리스크관리 현황과 대응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NH농협금융은 최근의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금융시장 변동성 심화를 반영해 신용·시장·유동성·운영리스크 전반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시나리오 점검을 강화한다. 또한 RORWA 등 리스크 대비 수익성 지표를 중심으로 리스크와 수익의 균형적 관리 체계를 고도화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공고히 할 계획이다.

양재영 NH농협금융지주리스크관리 부문 부사장은 “2026년에도 대내외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NH농협금융은 자회사 간 협업과 선제적 대응을 통해 그룹차원의 통합리스크 관리체계를 한층 고도화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김주형 기자 gh471@

부실금고 관리·감독 강화 새마을금고, 인력 58명 확충

새마을금고가 신년 조직개편을 통해 건전성 관리 및 감독 인력을 최대 58명 확충한다. 금융당국이 새마을금고 감독 인력을 늘리고, 검사대상 금고를 확대하는 등 강도 높은 감독권 행사에 나선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지난 12월 이사회에서 의결된 조직개편안을 바탕으로 신년 인사 및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이번 인사의 골자는 부실 금고 관리·감독 조직 인력 확대다.

금융당국 강력 감독권 행사 영향 금고감독위 신임 위원 선출 등 확충 금융위서 전담인력 10명 신규투입

먼저, 금고감독위원회 정원을 기존 210명에서 237명으로 늘려 지역 금고 현장 감독 인력을 확충한다. 지역 금고 합병 검토 조직인 금고구조개선본부 정원은 27명에서 58명으로 증원한다.

금고감독위원회의 경우 신임 위원도 새롭게 선출한다. 금융, 회계, 감독 업무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력을 선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새마을금고의 내부 감독 인력 확대는 금융당국의 새마을금고 관리·감독 강화 기조와 궤를 같이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에 새마을금고 관리·감독을 전담할 인력 10명을 신규 투입했다. 금융감독원 중소금융감독국과 중소금융검사2국에 5명씩 배치된다.

검사대상 금고 수도 확대했다. 행정안전부와 예금보험공사는 새마을금고의 검사대상 금고 수를 지난해 32개에

서 올해 57개로 약 1.5배 수준으로 확대했다. 특별 관리 기간인 상반기에는 검사 대상을 기존 대비 2배 이상 늘려 35개 금고에 대한 정부 합동 검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내외부적으로 새마을금고 관리·감독 체제가 강화되면서 금고 정상화가 빠르게 이뤄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여기에 제2기 김인 새마을금고 회장 체제가 본격 출범하면서 건전성 관리 및 부실 금고 정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이번 인사를 두고 “새마을금고가 내부에서 건전성 관리 감독에 비중을 많이 두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관련 부서 인원을 계속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새마을금고는 지난 2019년 체계화된 금고 검사를 위해 금고감독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분산된 지역 금고 검사인력을 금고감독위원회로 통합해 검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지난 2024년에는 새마을금고뱅크런 사태를 계기로 금고구조개선본부를 새롭게 설립했다. 금고개선본부는 각 금고의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등의 지표를 활용해 합병 대상 금고를 선정, 인근 우량 금고와 합병하는 작업을 도맡는다.

금고구조개선본부 출범 이후 새마을금고의 부실 금고 구조조정 수위는 높아지고 있다. 지난 2020~2023년 연간 1~6곳에 불과했던 합병 금고 수는 본부 설립 첫해인 2024년 12곳으로 늘어났다. 지난해에는 25곳까지 늘어남에 따라 향후에도 전담 조직을 통한 강도 높은 부실 금고 조정 기조가 지속될 전망이다.

/안재선 기자



글로벌 조경 설계회사인 그랜트 어소시에이츠의 대표작 싱가포르 ‘가든스 바이 더 베이’. /대우건설

대우건설, 글로벌 기업과 성수4지구 수주전

싱가포르 ‘마리나베이’ 설계 아를
그랜트 어소시에이츠와 협업 진행

대우건설이 성수전략정비구역 제4지구(이하 성수4지구) 수주를 위해 설계부터 건축구조, 조경까지 글로벌 기업과 손을 잡는다.

대우건설은 성수4지구 입찰을 준비하며 세계적인 구조 설계 및 엔지니어링 회사인 아를(ARUP), 조경·공간 설계 전문인 그랜트 어소시에이츠와 협업을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양사 모두 영국에 기반을 둔 다국적 기업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이번 협업은 국내 초고층 시장에서 안전성과 혁신성을 겸비한 구조 설계에 쾌적하고 지속 가능한 조경·공간 설계를 결합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아를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고층인 679m 높이의 말레이시아 ‘메르데카 118’을 비롯해 632m 높이의 ‘상하이 타워’, 싱가포르 ‘마리나베이 샌즈’ 등 세계적인 초고층 랜드마크 건축물의 구조설계와 엔지니어링을 수행해 왔다. 특히 초고층 건축물에 요구되는 고난도 구조 시스템 설계와 풍환경 해석, 성능 기반 내진 설계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풍부한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성수4지구 재개발 사업에서 아를은 최고 높이 250m에 달하는 건축물의 특성을 고려해 고층 및 초고층에 최적화된 구조시스템 설계, 지진 및 풍하중에 대비한 구조 안전성 확보 등 첨단 엔지니어링 기술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그랜트 어소시에이츠는 글로벌 조경 설계 전문기업이다. 싱가포르의 가든스 바이 더 베이(Gardens by the Bay), 런던 린 엘리자베스 올림픽 파크 등 세계적인 랜드마크 프로젝트를 통해 도시와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혁신적 외부 공간을 구현해왔다.

이번 성수4지구 재개발 사업에서 그랜트 어소시에이츠는 초고층 건축과 한강, 성수 지역의 도시적 맥락이 조화를 이루는 외부 공간 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초고층 단지에 걸맞은 스카이라인과 연계한 경관 계획과 단지의 정체성과 가치를 극대화하는 하이엔드 조경 디자인을 통해 차별화된 조경 공간을 구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우건설은 성수4지구 설계를 위해서는 미국의 마이어 아키텍츠(Meyer Architects)와 협업하기로 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드파인 연희’ 청약 1순위 경쟁률 44대1

‘드파인 연희’ 아파트 1순위 청약 경쟁률이 44대1을 기록했다. 특별공급 경쟁률 37.8대 1에 이어 두 자릿수 경쟁률을 나타냈다.

21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20일 진행된 드파인 연희 1순위 151가구 모집에 6655명이 신청해 모든 주택형이 마감됐다.

평균 경쟁률은 44.1대 1이며 유형별로는 59㎡A형 경쟁률이 66.2대 1로 가장 높았다. 가장 많은 45가구가 공급되는 인기 평형인 만큼 신청자가 3000명에 육박했다. 이어 84㎡A형 55.6대 1, 59㎡B형 44.9대 1, 84㎡B형 35.7대 1, 115㎡B형 34대 1, 74㎡C형 33대 1 순으로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다.

드파인 연희는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의 재개발 단지로, 올해 서울에서 처음으로 분양되는 아파트다. SK에코플랜트가 2022년 출시한 하이엔드 주거 브랜드 ‘드파인’이 서울에 처음으로 적용되는 곳으로 관심을 끌었다. 청약 당첨자 발표는 28일이며, 계약은 내달 8~10일로 예정돼 있다.

/성채리 인턴기자 cr56@

선박엔진기업, 글로벌 수주 증가 친환경·전동화 등 투자규모 확대

대량선박 건조·친환경 규제 영향
이중연료 분야 등 기술 격차 주효

한화엔진 4340억 신규 계약 체결
HD현대마린엔진
생산설비 보수·개선 등 221억 투자

중국 조선업의 대량 건조 물량과 친환경 규제 대응 수요가 맞물리며 한국 선박엔진 기업으로 발주가 몰리고 있다. 이중연료(DF) 엔진 분야에서의 기술 신뢰와 검증된 운항 레퍼런스가 강점으로 부각되면서 국내 엔진사들은 지난해 수주를 크게 늘렸고, 올해도 연초부터 대형 계약이 이어지고 있다. 늘어난 물량에 대응하기 위해 설비 신설과 생산성 개선 투자도 확대되는 분위기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엔진은 최근 공시를 통해 4340억원 규모 선박용 엔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24년 매출의 36.1%에 해당한다. 계약 상대와 지역은 비공개이나 공시에 공급 지역이 아시아로 기재된 점 등을 근거로 업계에서는 중국 조선사향

물량으로 해석하고 있다. HD현대마린엔진도 이달 들어 중국 조선소와 243억원, 622억원 계약을 각각 체결했다. 이틀간 누적 계약액은 865억원으로 지난 2024년 매출의 27.4% 수준이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수주 확대 흐름이 올해도 연초 대형 계약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평가다. HD현대마린엔진은 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이익 759억1159만원(전년 대비 128.6% 증가), 매출 4023억 9622만원(27.4% 증가)을 기록했다. 한화엔진은 지난해 3분기말 누적 매출 1조 32억원(14.5% 증가), 영업이익 827억원(55.1% 증가)을 달성했다.

수주 확대의 배경으로는 조선업 호황과 중국의 대량 건조 물량이 맞물리며 엔진 발주가 증가한 점이 꼽힌다. 여기에 국제해사기구(IMO)의 탄소 규제 강화로 DF 엔진 수요가 늘어나면서, 선주들이 가격보다 운항 안정성과 실선 레퍼런스를 중시하는 경향이 강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올해도 선박엔진 발주가 견조하게 이어지면서 수주 모멘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올투자증권은 HD현대마

린엔진의 올해 영업이익을 1552억원(전년 잠정치 대비 104% 증가), 영업이익률을 18.1%에서 25.8%로 추정했다. 한국투자증권은 한화엔진의 저속엔진 매출이 지난해 대비 12.7%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엔진업체들은 수주 증가 국면에서 친환경·전동화 역량 강화와 생산능력 확충 투자를 병행하고 있다. 한화엔진은 지난해 12월 노르웨이 자회사에 2908억원을 출자해 전기추진·전력자동화 업체 SEAM 인수에 투입했다. 또 창원 본사 선박엔진 생산설비 신설에 802억원을 투자해 오는 9월까지 집행할 계획이다. HD현대마린엔진은 가스엔진 생산설비 개선과 노후설비 보수, 공정 개선 등에 오는 9월까지 221억원을 투자한다.

윤현규 국립창원대 조선해양공학과 교수는 “조선산업은 수주산업이고, 엔진은 선주가 지정하는 경우도 있다”며 “계약 과정에서 선주가 신뢰성을 이유로 특정 엔진을 요청하는 형태가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유혜은 기자 dhalehale@metroseoul.co.kr



삼성전자의 빌딩 통합 솔루션 ‘b.iot’로 ‘팩토리얼 성수’ 빌딩 운영 상태 전반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모습. /삼성전자

삼성전자, ‘팩토리얼 성수’ 스마트빌딩 인증

스마트스코어 ‘골드’ 등급 획득

삼성전자의 빌딩 통합 솔루션 ‘b.iot’를 적용한 ‘팩토리얼 성수’ 빌딩이 국내 최초로 스마트 빌딩 국제 인증 ‘스마트스코어’의 ‘골드’ 등급을 획득했다.

21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b.iot’는 공조·조명·전력 등 빌딩 내 주요 설비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통합 운영하는 인공지능(AI) 기반 솔루션이다.

‘스마트스코어’는 스마트시티 인증 전문기업 ‘와이어드스코어’사가 운영하는 글로벌 스마트 빌딩 인증 제도로, 건축물에 적용된 사물인터넷(IoT)·AI·빅데이터 등 최첨단 기술의 구현 정도와

실제 효과, 효율성 등을 평가한다.

국내 최초로 ‘스마트스코어’ 골드 등급을 획득한 ‘팩토리얼 성수’는 2020년 성수역 인근 물류 부지를 개발해 만든 오피스 빌딩으로, 기획 단계부터 삼성전자와 ‘테크 레디 빌딩’ 콘셉트를 설정해 협업을 진행했다.

삼성전자 B2B통합오퍼링센터 박찬우 부사장은 “이번 인증을 통해 AI·디지털 트윈 등 최첨단 기술력을 갖춘 ‘b.iot’ 솔루션의 편의성과 경쟁력이 검증됐다”며 “AI 기반의 ‘자율 운영 빌딩’ 구현을 목표로 기술을 지속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노태문 “AI 기술발전 본질은 일상·실용적 혁신”

(삼성전자 대표이사 사장)

삼성 대표이사 최초 월스트리트 기고
“AI 가치, 평범한 순간에서 드러날 것”

노태문 삼성전자 대표이사 사장(DX 부부장·사진)이 “인공지능(AI)의 설계와 디자인에서 실질적 유용성과 개방성, 신뢰감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사장은 2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 기고를 통해 ‘아라마의 법칙’을 인용하며 “AI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일상적이고 실용적인 혁신으로 확장할 수 있게 만드는 본질을 절대 놓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아라마의 법칙은 새로운 기술이 단기적으로는 과대평가 되고 장기적으로는 과소평가 되는 경향을 설명하는 용어다.



삼성전자대표이사
가 월스트리트저널에
기고를 올린 건 이번
이 처음인 것으로 전
해졌다.

노 사장은 “AI에 관한 핵심 질문은 더 이상 인지도 여부가 아니라 AI가 실제 삶에서 얼마나 실용적이고 도움이 되느냐”라며 “맥락과 의도를 충분히 이해해 신뢰를 얻을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기업은 ▲보다 많은 사람이 사용 가능하고(Reach) ▲배울 필요 없이 자연스럽게 쓸 수 있으며(Openness) ▲안전적 성능과 보안을 내장한(Confidence) AI를 설계해야 한다고 노 사장은 강조했다.

그는 “산업 전반이 직면한 진짜 과제

는 AI 활용 능력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굳이 ‘프로젝트’를 만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는 AI를 설계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AI가 보편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언어, 문화, 사용 맥락 전반에서 동일한 수준으로 잘 작동해야 한다”며 “개방성은 언어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더 많은 사람이 편안하게 AI를 사용하려면 별도의 학습 없이도 직관적으로 쓸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노 사장은 “단기적이든 장기적이든, AI의 진정한 가치는 벤치마크나 모델 비교에서 드러나지 않는다”라며 “그것은 더 많은 사람이 세상을 이해하고, 참여하며, 일상을 보다 수월하게 살아가는 평범한 순간들 속에서 비로소 드러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한화오션, 60조 ‘캐나다 CPSP’ 수주 총력전

캐나다 해군 출신 국방 전문가 영입

한화오션이 최대 60조원 규모로 거론되는 ‘캐나다 초기 잠수함 프로젝트(CPSP)’ 수주를 위해 캐나다 해군 출신 국방 전문가를 현지 법인 지사장으로 영입했다.

한화오션은 캐나다 CPSP 잠수함 사업을 총괄할 캐나다 현지 법인 지사장으로 글렌 코플랜드(Glenn Copeland·사진) 사장을 영입했다고 21일 밝혔다.

코플랜드 신임 지사장은 캐나다 해군 장교로 임관해 작전 전술 장교, 초계함 부함장 등을 거치며 22년간 복무한 뒤 중령으로 전역했다. 이후 록히드마틴 캐나다에서 할리팩스 초계함 현대화 사업 책임자를 맡아 재무, 엔지니어링 프로세스, 소프트웨어 개발 등 사업 전반



을 총괄했다. 특히 전투관리시스템(CMS-330)의 사업개발부터 수출까지 다양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노바스코샤 지역 방산기업 협회장을 역임하며 지방 정부 및 방산업계와의 협상과 교류를 통해 구축한 네트워크 역시 강점으로 꼽힌다. 한화오션은 이러한 경력이 CPSP 사업의 핵심 요소인 산업·기술해택(ITB) 제안을 고도화하고 수주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코플랜드 신임 지사장은 “한화오션과 함께하게 돼 기쁘고 영광”이라며 “캐나다 해군 사업을 통해 얻은 경험이 CPSP 사업 수주라는 성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

HJ중공업, 美 해군 함정정비협약 체결

5년간 MRO사업 입찰 가능

HJ중공업은 미 해군 보급체계사령부(NAVSUP)와 함정정비협약(MSRA)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HJ중공업은 향후 5년간 미 해군 지원함과 전투함을 포함한 유지·보수·정비(MRO) 사업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됐다.

MSRA는 미 해군이 함정 MRO 수행 역량을 검증한 업체와 체결하는 협약으로, 미 해군 함정 MRO 사업 입찰 참여 자격으로 통한다. 체결 업체는 전투함·호위함 등 주요 함정 MRO 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다. 다만 미 해군이 제시한 품질과 기술력, 생산시설, 공급망, 보안시

스템, 안전관리 등 엄격한 기준을 충족하고 까다로운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HJ중공업은 MSRA 체결을 계기로 연 20조원 규모로 추산되는 미 해군 함정 MRO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고, 후속 수주와 고품질·납기 준수를 통해 미 해군과의 신뢰 관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HJ중공업 관계자는 “미 해군과 MSRA 체결로 글로벌 시장에서 함정 기술력을 공인받고, 미 해군의 주요 함정 MRO 시장에 본격 참여할 수 있게 됐다”며 “향후 MRO사업 수행에 전력을 미 해군과 지속적으로 상호 신뢰·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등 K방산의 위상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유혜은 기자

LG, 2026년형 휘센 출시… ‘AI콜드프리’ 기능 탑재

AI 기반 온도·습도 통합 제어

LG전자가 온도와 습도를 한 번에 제어하는 ‘AI콜드프리’ 기능을 최초로 탑재한 2026년형 휘센 신제품을 선보인다.

LG전자는 2026년형 ‘LG 휘센 오브제컬렉션 타워I’과 ‘LG 휘센 오브제컬렉션 뷰I 프로’ 에어컨을 출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신제품은 ▲실내 온도와 습도를 한 번에 제어해 내가 원하는 온도와 습도로 맞춤형 운전하는 AI콜드프리 ▲고객

의 위치와 공간을 감지해 상황에 맞는 바람을 보내주는 AI바람 등 혁신적인 냉방기능은 물론 ▲AI음성인식 ▲AI수면 등 차별화된 편의기능으로 고객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냉방 솔루션이 특징이다.

LG전자 ES사업본부 장석훈 RAC사업부장은 “온·습도를 한 번에 제어하는 AI콜드프리 기능처럼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AI의 편리함을 선사하는 2026년형 휘센 오브제컬렉션을 앞세워 프리미엄 AI 에어컨 시장을 지속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2026년형 휘센 신제품.

/LG전자

신규설비 가동·中 증설부담 커져 석화업계, 공급 과잉에 ‘실적 악화’

LG화학·롯데케미칼, 수요회복 지연
글로벌 시장 변화, 회복 어려운 구조
에틸렌 스프레드, 수익성 회복 한계
고부가가치 제품 비중 확대 해결책

국내 주요 석유화학 기업들이 지속되고 있는 공급 과잉 구조 속에서 올해도 하반기 대형 신규 설비 가동과 중국의 추가 증설 부담으로 침체국면 탈출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LG화학은 지난해 4분기 매출 11조1854억원, 영업손실 1624억원을 기록했을 것으로 전망된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0.12% 감소한 수준으로, 석유화학 부문의 수익성 악화가실적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롯데케미칼 역시 지난해 4분기 매출 5조90억원, 영업손실 2350억원을 기록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2% 줄었으며 영업손실은 직전 분기(1326억원) 대비 77% 확대된 규모다. 수요회복 지연 속에서 고정비 부담이 이어지며 적자 폭이 커졌다는 평가다.

올해 1분기에도 실적 개선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석유화학 업계의 대표적인 수익성 지표인 에틸렌 스프레드는 손익분기점으로 좁히는 톤(t)당 250달러를 크게 밑돌고 있다. 수요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가운데 공급 과잉이 지속되면서 수익성 회복이 쉽지 않은 구



롯데케미칼 대산공장 전경.

조가 이어지고 있다.

글로벌 석유화학 시장에서는 중국 내 신규 설비 증설이 지속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에쓰오일(S-OIL)의 대형 석유화학 설비인 샤한 프로젝트 가동도 예정돼 있다. 기존 공급 과잉 구조에 신규 물량이 더해질 경우 수급 불균형이 한층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LG화학의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은 11조67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07%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영업이익은 1304억원으로 흑자 전환이 예상되지만, 당기순이익은 378억원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롯데케미칼도 올해 1분기 영업손실 1753억원이 예상돼 적자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국내 나프타분해시설(NCC) 석유화학사들은 지난해 말까지 사업재편안을 제출하며 구조조정에 착수했다. 다만 현재 제출된 안은 큰 방향을 제시하는 수준으로, 정부와 업계는 늦어도 상반기 내 최종안을 확정하고 단계적인 구조조정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범용 제품 중심의 사업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한 연구개발(R&D) 투자 확대와 고부가가치 제품 비중 확대 전략도 병행할 계획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 기업 간 구조조정이나 통합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고부가제품 중심의 사업 전환이 실제로 작동해야 한다”며 “다만 시장 구조상 1~2년 안에 빠르게 전환이 이뤄지기는 쉽지 않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5G기반 차량용 텔레매틱스 기술개발 착수

현대모비스 자율주행 전환 대응
고정밀 지도서비스,원격제어 등 가능

현대모비스가 자율주행차량과 소프트웨어중심차량(SDV)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5G 무선통신 기반 차량용 텔레매틱스 기술 개발에 나선다. 자동차와 무선통신망을 결합해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함이다.

현대모비스는 모빌리티 분야 전장사업 강화를 위해 5G 무선통신 기반 안테나 일체형 텔레매틱스 솔루션(MTCU)을 개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최근 이동통신 세대가 4G에서 5G로 넘어가면서 모빌리티 분야에서도 고사양, 다기능 텔레매틱스 제품을 중심으로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현재 전 세계 대부분의 차량용 텔레매틱스 기능은 4G 이동 통신 기반으로 작동하고 있다. 현대모비스도 현재 4G 기반의 텔레매틱스 제품을 양산 공급 중이다.

현대모비스가 개발하는 5G 기반 차세대 텔레매틱스 기술은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커넥티드카 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양산 적용을 준비하고 있는 차세대 기술이다. 5G 기반 텔레매틱스 기술은 고정밀지도 서비스, 자율주행 원격제어, 초고화질 스트리밍 등 새로운 서비스가 가능하다. 현재 4G 통신 기반에서는 차량 내 무선 업데이트(OTA), 카투홀 서비스(차량과 스마트폰 연결), 인포테인먼트 콘텐츠 스트리밍 등의 서비스만 가능하다.

현대모비스 정수경 전장BU장(부사장)은 “차세대 커넥티드카 서비스 분야 빠른 시장 진입을 위해 올해 상반기까지 제품 개발을 완료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시장 주도권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자동차를 스마트폰처럼 다루고 싶어 하거나 차별화된 이동 경험을 원하는 사용자가 늘면서 텔레매틱스 시장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글로벌 텔레매틱스 제어기 시장은 올해 6400만대 규모에서 오는 2030년 7700만대 규모의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성운 기자 ysw@

코웨이, 유사 디자인 감시체계 강화

‘디자인 모니터링 TF’ 신설

코웨이가 기업 핵심 자산인 디자인 지식재산권(IP) 보호를 위해 업계 최초로 ‘디자인 모니터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유사 디자인 상시 감시체계 구축에 나선다.

21일 코웨이에 따르면 시장 내 유사 디자인 논란이 반복되는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조직 차원의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해 TF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TF는 올해 1분기 내 공식 출범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코웨이는 TF신설을 통해 시장 내 유사·모방 디자인 의심 사례를 조기에 포착하고, 권리 검토 결과에 따라 공식 경고부터 필요시 법적 조치까지 전사 차원의 선제 대응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코웨이가 추진 중인 ‘디자인 모니

터링 TF’는 대표이사 직속으로 지식재산(IP), 법무, 상품기획, 디자인, R&D, 홍보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전사 협업 조직으로 운영한다. TF는 ▲국내외 경쟁사 제품 및 시장 동향 상시 모니터링 ▲유사 디자인 의심 사례 신속 분석 ▲지식재산권 침해 판단 기준 정교화 ▲침해 가능성이 확인될 경우 법적 조치 등 단계별 대응을 추진한다.

특히, 코웨이는 기존의 사후 대응 방식에서 나아가, 상시 모니터링-지식재산권 검토-공식 경고-법적 조치로 이어지는 디자인 IP 보호 원스톱 프로세스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유사 디자인 발생 가능성을 조기에 차단하고, 브랜드 자산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승호 기자

“엑시트한 선배들, 후배위한 펀드 결성해야”

한성숙 장관, ‘기업가정신포럼’서 밝혀
“선배 펀드, 업계에 긍정 신호도”
지역경제 활성화·로컬창업 지원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사업이나 투자 등을 통해)엑시트(Exit)한 선배들이 후배들을 위해 벤처펀드를 많이 결성해 달라”고 부탁했다.

한성숙 장관은 21일 오전 (사)도전과 나눔이 서울 역삼동 GS타워에서 개최한 기업가정신포럼에 참여해 참석자들로부터 질문을 받고 “(벤처펀드 등에)투자하신 분들이 (돈을 벌어)행복해야 신

규 투자자가 또 생기는 등 선순환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데 동의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로 84회를 맞이한 도전과 나눔 기업가정신포럼에는 선배 기업인들과 스타트업을 창업한 후배 기업인 등 300여 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

한 장관은 “개인 등 투자자들은 빨리 회수하고 싶어하고 투자를 받은 기업들은 장기투자를 원하는데 둘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추느냐가 중요한 것 같다. 이런 차원에서 정부는 (장기투자하는) ‘인내자본’ 역할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선배들이 펀드를 결성하면 업

계에 주는 긍정적 신호도 있고 정부의 정책을 변화시키는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주도의 경우 중기부와 한국벤처투자자 추진하는 ‘2025년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출자사업’을 통해 성공한 재일 교포를 중심으로 지역에 투자하는 100억원 규모의 스타트업 펀드를 조성한 바 있다. 미국에 진출해 사업을 하고 있는 선배들이 결성한 UKF(United Korean Founders)에서도 후배 스타트업들을 위한 펀드 결성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승호 기자 bada@

제주항공, 보조배터리 기내사용 전면 금지

화재예방 위한 사전 안전관리
전자담배·무선고데기 반입 금지

국내 항공업계가 보조배터리로 인한 기내 사고를 막기 위해 안전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항공기 내 연기·화재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리튬이온 배터리 발화 가능성이 지목되면서 항공사들이 사후 대응 중심 관리에서 사전 예방 중심 안전관리 체제로 전환하는 모습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제주항공은 오는

22일부터 국내선과 국제선 전 노선에서 기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 기존 국토교통부 지침상 기내에서 보조배터리 충전이 제한돼 있었지만, 제주항공은 한 단계 더 나아가 보조배터리 자체의 기내 사용을 막아 화재 위험 요인을 원천적으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제주항공은 지난해부터 리튬배터리 관련 안전조치를 단계적으로 강화해왔다. 지난해 2월부터 기내에 화재 진압용 파우치를 탑재해 운영 중이며, 국토부

안전관리 체계 강화 표준안 시행에 따라 3월부터는 보조배터리 단락방지 조치 후 보조배터리를 몸에 지니거나 눈에 보이는 곳에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8월에는 항공기 내부 선반에 온도 감응 스티커를 부착했다. 또 지난해 2월부터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 등 리튬배터리 관련 습득 유실물은 즉시 폐기하고 있으며, 4월부터는 고열 발생 위험이 있는 무선고데기의 기내 반입도 금지하고 있다. 제주항공 홈페이지를 통해 기내 반입이 가능한 리튬배터리 충전 용량(Wh)을 직접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유혜은 기자 dhalehale@

LG, 퓨리케어 얼음정수기 신모델 선배

정수기 교체 시 10만 포인트 증정

LG전자가 LG 퓨리케어 오브제컬렉션 얼음정수기 신모델 출시를 기념해 정수기 교체 수요를 겨냥한 프로모션에 나섰다.

21일 LG전자에 따르면 오는 31일까지 공식 온라인 브랜드숍에서 ‘LG 정수기 체인지업 페스티벌’을 진행한다.

LG 퓨리케어 오브제컬렉션 얼음정수기는 2026년 1월 기준 국내 유일의 냉동 보관 얼음정수기다.

이번 2026년형 신모델은 하루 제빙량을 3.8kg까지 늘려 기존 모델 대비 두 배의 성능을 구현했다. 얼음 저장 용량 역시 1kg으로 확대돼 이전보다 1.8배 증가했다. 이에 더해 맞춤형수·맞춤온도·미세출수 기능과 중금속 9종을 걸러



‘LG 정수기 체인지업 페스티벌’ 프로모션 이미지.

/LG전자

내고로로 바이러스를 99.99% 제거하는 ‘올 퓨리 필터 시스템’ 등을 적용했다..

LG전자 공식 온라인 브랜드숍에서 얼음정수기 신모델을 비롯해 이벤트 대상 정수기를 구매 또는 구독 후, 정수기 교체 인증 정보를 입력한 고객에게 LG 전자 멤버십 포인트 10만P를 증정한다.

/김민술 인턴기자 mnskim@

LOTTERIA™

치킨버거의 근본을 세우다!

파이어핫

단품 6,900원
세트 8,900원

그릭랜치

단품 6,900원
세트 8,900원

두툼하다
두툼해!

침착맨'S PICK

갈라야 갈 수 없는 무적의 치킨버거

통다리 크리스파 치킨버거

상기 이미지는 연출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고객과 기획부터 점검까지 함께… SK텔레콤, 신뢰경영 강화

고객신뢰위와 올해 첫 정기 간담회
전문 분야별 4개 분과 신설하기로
100명 규모 고객자문단 역할 확대

SK텔레콤이 사이버 침해 사고 이후 고객 신뢰 회복을 핵심 경영 과제로 내걸고, 올해 실행력 강화에 초점을 맞춘 대응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SK텔레콤은 21일 서울 중구 을지로 T타워에서 고객신뢰 위원회와 함께 2026년 첫 정기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재현 SKT CEO를 비롯해 한명진 MNO CIC장, 이해연 고객가치혁신실장 등 주요 임원진과 안완기 고객신뢰위원장 및 위원 등 총 12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난해 고객 신뢰 회복 활동을 점검하고, 2026년 신뢰 회복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지난해 5월 발생한 사이버 침해 사고로 불편을 겪은 고



정재현 SKT CEO가 21일 을지로 SKT T타워에서 열린 고객신뢰위원회와의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SKT

객의 신뢰 회복을 위해 출범한 기구로, 이후 정기 회의를 통해 관련 대책을 논의해왔다. 이번 간담회는 출범 이후 12번째다.

안완기 위원장(전 한국생산성본부

회장)은 모두발언에서 “위원회 출범 이후 약 8개월간 고객 최우선 원칙에 따라 중장기적 관점에서 일관되고 체계적인 신뢰 회복 노력이 이어지도록 지원해왔다”며 “올해는 각 위원의 전문성을 바탕

으로 고객과 SKT를 잇는 양방향 소통을 강화하고, 신뢰 회복 노력을 고객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는 ‘엠버서더’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위원회 내에 전문 분야별로 4개 분과를 신설하기로 했다. 분과는 ▲소비자 보호 ▲고객 커뮤니케이션 ▲사회적 책임 강화 ▲소비자·인사이드로 구성됐다. 각 분과는 신종원 위원(전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 김채연 위원(고려대 심리학과 교수), 손정혜 위원(법무법인 해명 변호사), 김난도 위원(서울대 명예교수)이 분과장을 맡는다.

위원회는 분과별로 고객 중심 인사이트를 공유하고, 인지심리학 관점에서 고객 소통 방식을 자문하는 한편, 신뢰 회복 활동의 사회적 책임과 실효성을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분쟁 발생 시 고객 보호 차원에서 신속하고 투명한 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분과별 활동을 통해 개선 사항을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SKT와 위원회는 실행력 강화를 위해 고객가치혁신실과 연계해 ‘원 팀(One Team)’ 체계를 구축하고, 고객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기회 마련 등 세부 과제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고객신뢰위원회와 공동 운영해 100명 규모의 고객자문단 역할도 확대·강화한다. 지난해 다양한 연령과 직업군의 고객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온 데 이어, 올해는 고객 중심 경영 전반에 보다 깊이 참여시켜 신뢰 회복 활동과 상품·서비스 기획 단계부터 사후 점검까지 의견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정재현 SKT CEO는 “올해는 단순한 신뢰 회복을 넘어 고객과의 신뢰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고객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활동에 집중할 것”이라며 “업의 본질인 고객을 중심에 두고 회사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변화하는 SKT’를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아이폰도 기업 메시지 안심하고 받는다

RCS 도입해 긴 글·고화질 파일 수신
브랜드 로고 노출돼 금융사기 예방

SK텔레콤·KT·LG유플러스 통신 3사가 아이폰 RCS(Rich Communication Services, 차세대 문자서비스) 기업 메시지를 정식 서비스로 전환했다고 21일 밝혔다.

RCS는 기존 문자 메시지(SMS)와 멀티미디어 메시지(MMS)보다 긴 글을 전송하거나 고화질 파일을 보낼 수 있는 메시징 서비스다. 국내에서는 그동안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에서만 지원됐으나, 지난해부터 아이폰의 ‘iOS’에서도 RCS 이용이 가능해졌다.

통신 3사는 지난해 9월 iOS 26 업데이트 이후 RCS 개인용 정식 서비스와 함께 기업 메시지 오픈 베타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후 서비스 안정성과 단말·시스템 간 호환성을 점검하며 최적화 작업을 거쳐 이번에 정식 서비스로 전환했다. 아이폰 11 시리즈 이후 모델에



통신 3사는 아이폰 RCS(Rich Communication Services) 기업 메시지를 정식 서비스로 전환했다고 21일 밝혔다. /LG유플러스

서 iOS 26 이상을 사용하는 고객이 이용할 수 있다.

정식 서비스 적용으로 아이폰 RCS 기업 메시징 환경도 개선됐다. 기존에는 기업이 발송한 장문 메시지가 일부

생략돼 표시되는 경우가 있었지만, 버튼이 없는 글자형 메시지에 한해 긴 내용도 그대로 전달되도록 바뀌었다.

아이폰에서도 기업 메시지를 수신할 때 브랜드 프로필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기업이 RCS 비즈니스센터에 브랜드를 등록하면 메시지 발송 시 로고가 자동으로 노출돼 발신 주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스미싱 등 금융사기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RCS 기업 메시징은 메시지 클릭 여부 등 고객 반응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어 마케팅 효과 분석에도 활용된다. 이미지 템플릿 상품을 통해 기존 문자 서비스 대비 비교적 낮은 비용으로 운영할 수 있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도 활용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해당 서비스는 통신 3사 가입자뿐 아니라 알뜰폰 이용자에게도 발송할 수 있고, 로밍 중에도 메시지 수신이 가능하다. 현재 국내 RCS 이용자 수는 약 4200만 명 수준이다.

/김서현 기자

과기부, 핵융합 가속화 R&D 계획 확정

설계기술 개발 사업 신규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핵융합 전력 생산 시기를 앞당기기 위한 ‘핵융합 가속화 전략’의 이행을 위해 ‘2026년도 핵융합 연구개발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본격 추진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시행계획은 지난해 수립한 핵융합 가속화 전략을 바탕으로 한국형 핵신 핵융합 실증로 개발을 중심에 두고, 인공지능(AI) 기술 접목, 다양한 핵융합 방식에 대한 도전적 연구, 산학연 협력 강화, 지역 거점 산업 육성, 제도·전략 정비까지 핵융합 생태계 전반을 고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2026년은 정부가 ‘한국형 핵신 핵융합 실증로’ 개발을 본격적으로 이행하는 첫해로, 연구개발 성과를 실증과 산업으로 확산시키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25년 564억원 대비 560억원을 증액한 1124억원의 예산을 핵융합 연구개발에 투입할 계획이다.

우선 한국형 핵신 핵융합로 개발을 위한 설계기술 개발 사업이 신규로 추진된다. 이 사업을 통해 전력 생산량과 장치 규모 등 기본 사양을 설정하고, 단계별 건설 일정과 함께 중장기 실증·상용화 로드맵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핵융합 연구 전반에 AI 기술을 본격

도입하는 신규 사업도 시작된다. 플라즈마 제어와 실험·운전 데이터 분석, 설계·해석 고도화 등에 AI를 적용해 연구 효율성과 성능 예측 역량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다양한 핵융합 방식에 대한 도전적 연구 지원도 확대된다. 구형 토러스, 역자장 방식, 스텔러레이터 등 차세대 핵융합 개념 연구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이를 뒷받침할 전문 인력 양성과 연구 기반 확충도 병행한다.

산학연 협력도 한층 강화된다. 정부는 ‘핵융합 혁신 연합’을 중심으로 출연연·대학·기업 간 협력을 체계화하고, 8대 핵융합 핵심기술 분야별로 산·학·연원팀 추진체계를 구축해 연구개발 전 과정에 기업 참여를 확대할 방침이다.

/김서현 기자



LG CNS AI클라우드사업부장 김태훈 부사장(오른쪽 네번째), 화학/전자사업부장 장민용 상무(오른쪽 세번째)가 종근당 관계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는 모습 /LG CNS

LG CNS, 제약까지 AX 포트폴리오 확대

〈인공지능 전환〉

신약개발 국가 연구사업 참여
종근당 품질평가 자동화 구축

LG CNS가 금융·제조·공공·방산 분야에 이어 제약·바이오 영역에서도 인공지능 전환(AX)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신약개발 관련 국가 연구사업에 참여하고, 종근당의 제품 품질 평가 자동화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며 제약·바이오 분야에서의 적용 사례를 확보했다.

LG CNS는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K-AI 신약개발 전임상·임상 모델개발사업(R&D)’에 용역기관으로 참여한다. 해당 사업은 4년 3개월간 정부지원금 약 371억원이 투입되는 대형 연구과제로, 신약개발 과정 전반에 AI 기술을 적용하는 것이 목표다.

이 사업에서 LG CNS는 ‘AI 기반 신약개발 임상시험 설계·지원 플랫폼’ 개발을 맡는다. 참여 기관들이 개발하는 다양한 신약개발 AI 모델을 에이전틱 AI 기반으로 연계해, 임상시험 설계와 운영을 통합 관리하는 체계를 구현할 계획이다.

의료기관과 임상연구소 등이 데이터를 외부로 이전하지 않고도 공동 학습이 가능하도록 연합학습 기술을 적용해, 보안 요구가 높은 의료 데이터를 안

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전임상과 임상 단계 간 단절을 줄이고 개발 효율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신약개발은 평균 10~15년이 소요되고, 임상시험 단계에서의 실패율이 높다는 점이 구조적 한계로 지적돼 왔다. LG CNS는 단백질 구조 분석·설계 등 제약·바이오 산업에 특화된 기술과 AI를 결합해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제약 현장의 실무 자동화 사례도 나왔다. LG CNS는 종근당의 연간 품질평가 보고서(APQR) 작성 업무를 에이전틱 AI로 자동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기업용 에이전틱 AI 플랫폼을 활용해 데이터 수집, 분석, 검증, 보고서 작성까지를 다수의 AI 에이전트가 분담수행하는 구조다. 품질경영시스템과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 등 내부 시스템의 데이터를 연계해, 반복적인 문서 작업을 자동화했다.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매년 APQR을 작성해야 한다. 기존에는 제품별 보고서 작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으나, 자동화 서비스 도입 이후 문서 생성 시간이 90% 이상 줄었다. 이에 따라 현장에서는 검증과 품질 관리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서현 기자

현대차 시총 100조… 비상장 자회사 덕에 모기업 주가 ‘쑥’

보스틴다이내믹스 ‘아틀라스’ 호평
현대차 계열사 목표주가 줄상향
SK·HD현대·CJ 등도 자회사 수혜

자회사 상장 이후로는 변동성 커
테마주 경우 과열 투자 유의해야

뽄뽄한 비상장 자회사 덕에 모기업들의 몸값이 치솟고 있다. 상장 자회사와 달리 비상장 자회사의 가치가 오히려 지주회사에 반영되기 때문에 풀이된다. 이재명 정부 들어 이사의 충실 의무를 확대한 상법 개정도 지주사나 그룹사의 주가를 끌어올리는 데 한몫했다.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현대자동차 시가총액은 증가기준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112조4120억원)을 돌파했다. 주가는 14.61% 오른 54만9000에 마감했다.

현대자동차그룹 로봇 계열사 보스틴다이내믹스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에 대한 해외 매체의 호평이 잇따르자 긍정적 투자심리가 형성된 것으로 풀이된다.

NH투자증권은 이날 현대차그룹의 로보틱스 계열사인 보스틴다이내믹스의 2027년 영업가치를 약 53조3000억원으로



CES 2026 현대차그룹 전시관에서 아틀라스가 자동차 부품을 옮기는 작업을 시연하는 모습.

/현대차그룹

로 추산했다. 하늘·정연승 연구원은 보스틴다이내믹스에 대한 재평가 근거로 “경쟁 업체 대비 우월한 양산형 모델 스펙, 사용처가 명확한 고객사 확보, 고객사가 필요한 휴머노이드 학습 데이터를 현장에서 학습할 수 있으며 공장 투입 후 피드백을 반영해 재학습 가능하다는 점” 등을 꼽았다. 보스틴다이내믹스 지분을 보유한 현대차그룹 계열사의 목표주가를 상향 조정했다. 현대차는 40만원에서 60만원, 기아는 15만원에서 21만

원, 현대모비스는 47만원에서 58만원, 현대글로비스는 22만 5000원에서 31만 9000원을 각각 상향 제시했다.

강성진 KB증권 연구원은 “현대차는 피지컬 AI 시장에서 테슬라를 상대할 수 있는 유일한 업체”라고 목표주가를 80만원으로 상향했다.

SK그룹의 지주회사 SK도 이날 29만 3000원에 마감했다. 지난 16일에는 30만 8000원까지 상승했다. 1년 전만해도 14만4500원이었다. SK에코플랜트의 상장

기대감 등이 반영됐다는 게 시장 평가다. SK에코플랜트는 2022년 6000억원 규모 프리IPO 투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2026년 7월까지 상장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1년 전 8만4900원대에 머물던 HD현대도 이날 장 중 27만8500원까지 치솟았다. 사상 최고가다. 비상장 자회사인 HD현대오일뱅크의 실적 부진이 이어지고 있지만, HD현대사이트솔루션 등 다른 계열사가 탄탄한 성적을 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HD현대로보틱스의 기업공개(IPO)가 추진되는 점도 호재로 작용했다. HD현대로보틱스는 지난해 10월 한국산업은행과 국내 사모펀드 운용사 KY프라이빗에쿼티(PE)로부터 1800억원 상당의 투자를 받을 때 기업가치 1조 8000억원을 인정받았다. 2020년 KT에서 500억원 투자를 받았을 때 평가받은 5000억원에서 약 5년 만에 4배 가까이 증가한 셈이다. 시장에서는 이번 상장 과정에서 HD현대로보틱스가 3개월 전보다 최소 3배 이상 많은 6조~7조원의 기업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CJ는 비상장 자회사 덕에 구조적 이익 레벌업이 기대되고 있다. CJ의 신유

통 관련 비상장 자회사의 3분기 매출액과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6.2%, 31.8% 증가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또한 식품 비상장 자회사 CJ푸드빌은 연내 미국 조지아주 생지 공장을 완공할 예정이다”며 “2026년부터 가동되어 현지 가맹점 확장을 본격 지원할 예정이다. 공격적인 점포 확대에 따른 CJ푸드빌의 해외 매출 성장에 주목해야 될 시점이다”고 말했다. CJ의 목표주가도 기존 18만 5000원에서 22만원으로 19% 상향 조정했다. 박 연구원은 “CJ는 2023~2025사업연도에 대해 별도재무제표 기준 당기순이익(일회성 비경상이익 제외)의 70% 이상 배당을 할 계획이다”며 “비상장 자회사 가치 상승과 배당성향(별도 기준 70% 이상) 기조를 고려하면 밸류에이션 매력도 여전히 높다”고 평가했다.

다만 시장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비상장 자회사의 상장 전까지는 지주회사의 주가 흐름이 좋지만, 상장 이후 주가는 변동성이 심한 모습을 보인다”며 “로봇주 등 테마주의 경우 과열 우려도 있는 만큼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타임폴리오 ETF, ‘TIME’으로 단순화… “보수보다 수익률 집중”

오늘부터 ‘TIME ETF’로 명칭 변경
투자자 편의성·브랜드 전달력 강화
‘보수 이상 가치 제공하는 ETF’ 목표

타임폴리오자산운용이 ETF 브랜드를 ‘TIMEFOLIO’에서 ‘TIME’으로 바꾼다. AUM 4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패시브 중심 시장에서 액티브 ETF 선두 입지를 굳히겠다는 의도다.

타임폴리오자산운용은 21일 서울 여의도 TP타워에서 ETF 리브랜딩 기자회견을 열고, 기존 ‘TIMEFOLIO’ 브랜드를 ‘TIME’으로 단순화한다고 밝혔다. 현재 상장된 ETF 명칭은 22일부터 일제히 ‘TIME ETF’로 변경된다.

김홍기 대표는 이날 인사말에서 “운용 자산(AUM) 4조원을 돌파하고 주식형 액티브 ETF 시장에서 선두를 굳힌 만큼, 이제는 투자자 편의성과 브랜드 전달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시점”이라며



김홍기 타임폴리오자산운용 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TP타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타임폴리오자산운용

“회사 정체성은 유지하되 투자자가 더 쉽고 직관적으로 상품을 인식할 수 있도록 브랜드를 재설계했다”고 말했다.

이번 리브랜딩은 단순한 축약이 아니라 투자 환경 변화에 대응한 전략적 선택이라는 설명이다. 모바일·MTS 중심의 투자 환경에서 ETF 브랜드는 곧 검색 키워드이자 첫 인식 요소가 되는 만큼, 9글자·5음절의 ‘TIMEFOLIO’를 4글자의 ‘TIME’으로 압축해 접근성과 가독성을 높였다는 것이다. 회사 측은 브랜드 변경으로 검색 소요 시간과 오입력 가능성이 줄어들고, 상품 진입 장벽도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남의 ETF전략본부장은 리브랜딩 배경에 대해 “초기에는 운용사 이름을 전면에 두는 것이 신뢰 확보에 효과적이었지만, 이제는 성과와 전략 자체가 브랜드로 인식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TIME은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고객에게 전달하는 메시지가 회사의 방향성을 담은 키워드”라고 설명했다.

TIME 브랜드에는 세 가지 메시지가 담겼다. 고객의 인생 흐름과 함께하는 투자라는 ‘LIFE TIME’, 노후의 시간을 가장 안정적이고 의미 있게 만들겠다는 ‘BEST TIME’, 그리고 시장 변화에 따라 기민하게 판단하고 실행하는 운용 역량을 뜻하는 ‘ACTIVE TIME’이다. 타임폴리오운용은 이를 통해 액티브 ETF가 단기 매매 상품이 아니라, 생애주기 속에서 활용 가능한 투자 수단이라는 인식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운용 성과와 향후 전략도 공개됐다. 타임폴리오운용의 ETF AUM은 지난해 말 3조8000억원을 넘어선 데 이어 최근 4조원을 돌파했다. 국내 주식형 액티브 ETF 시장 점유율은 1위다. 대표 상품인 ‘TIME 코스피액티브’는 상장 이후 82.5%의 수익률을 기록해 같은 기간 코스피 상승률(54.7%)을 크게 웃돌았다. 미국 시장에서도 ‘TIME 미국S&P500액티브’, ‘TIME 미국나스닥100액티브’ 등이 비교지수 대비 두 배 안팎의 초과 성과를 냈다.

김남호 ETF운용본부장은 “매분기 포트폴리오를 제로베이스에서 재점검하

고, 실적·유증·합병 등 기업 이벤트에 기민하게 대응하며 적극적으로 리밸런싱한 결과”라며 “시장이 주는 대로만 수익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시장을 이기는 플레이를 지향한다”고 말했다.

타사 대비 높은 수수료와 관련해서도 명확한 선을 그었다. 김남의 본부장은 “목표는 낮은 보수가 아니라 실질적인 절대 수익률”이라며 “보수가 싸서 선택되는 ETF가 아니라, 보수 이상의 가치를 제공하는 액티브 ETF로 인식되고 싶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이 검토 중인 레버리지·인버스 ETF에 대해서는 “지수 배율을 정확히 추종하는 상품은 패시브 하우스의 영역”이라며 출시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타임폴리오운용은 상품 수 확대 경쟁보다는 상장 이후까지 책임지는 운용을 중시하는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허정윤 기자

NH투자증권, 30억 고액자산가 6000명 돌파

‘패밀리오피스 서비스’ 229가구 유치
WM사업부 총자산 전년比 20조 ↑

NH투자증권은 30억원 이상 고액자산가 고객이 6000명을 돌파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14일 기준 30억원 이상 고액자산가 수는 6323명으로 지난 ‘24년말 대비 51%가 증가한 수치로 빠른 속도로 자산관리 시장의 강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NH투자증권 WM사업부는 30억원 이상 고액자산가를 대상으로 한 차별화된 VIP 멤버십 서비스와 초고액자산가

가문 관리 플랫폼인 ‘패밀리오피스 서비스’를 통해 자산관리 경쟁력을 강화해왔다. 그결과 WM사업부 총자산은 전년 대비 약 20조원이 증가했으며, 증가율로는 업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자산관리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된 초부유층 가문 관리 플랫폼인 ‘패밀리오피스 서비스’의 성장이 두드러진다. IB사업부와 연계하여 개인자산과 법인자산을 통합 관리하는 모델이 초고액자산가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패밀리오피스 서비스’는 현재 229가

문으로 24년말 대비 61%가 증가했으며, 신규 가입한 고객 가운데 약 35%는 타사에서 자산을 이전하거나 신규로 유입된 고객이다.

한편 WM사업부는 앞으로도 ‘패밀리오피스 서비스’ 전담 조직을 강화하고, 단순한 자산관리 수준을 넘어 ▲상속/증여 세무컨설팅 ▲가업 승계 ▲부동산컨설팅 ▲재단 및 가족법인 설립 지원 등 가문의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토탈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배광수 WM사업부 대표는 “이번 성과는 고객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진정성 있는 완성형 자산관리서비스를 지속해 온 결과”라고 밝혔다.

KB증권, ‘프라임 클럽’ 구독자 자산 2.9조

고품질 콘텐츠로 신뢰도 높아져
구독자 자산, 전년比 93% 늘어

KB증권은 2025년 말 기준 ‘프라임 클럽(PRIME CLUB)’ 구독 고객의 총 자산이 약 2조9000억원으로 늘어났다고 21일 밝혔다. 전년 말 1조5000억원 대비 약 93% 증가한 것이다. 콘텐츠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구독자와 자산이 함께 확대되는 선순환 구조가 구축됐다는 분석이다.

‘PRIME CLUB’의 지난해 연간 유튜

브 누적 조회수는 600만회를 돌파했고, 서비스 만족도도 95점을 상회했다. KB증권은 전문가들이 시장 흐름을 면밀히 분석해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고품질 콘텐츠가 축적되며, 신뢰도 높은 투자 정보 채널로 자리잡았다고 평가했다.

또한, ‘PRIME CLUB’은 시청 중심의 채널을 넘어 투자자와 소통하는 플랫폼으로 진화했다. 2025년 한 해 동안 라이브 방송에서 오간 실시간 채팅 수는 25만건을 넘어서며 투자자들의 참여도 역시 크게 확대됐다.

/신하은 기자 godhe@

정부, 글로벌 ‘탄소국경’ 본격 대응 수출기업 지원 강화·검증기관 확보

산업부 등 범부처 종합대응 회의
EU CBAM 관련 교육·연수 확대
“무역장벽 작용하지 않도록 최선”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올해 1월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국내 수출기업의 부담이 내년부터 가시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범부처 차원의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기업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박정성 산업통상부 통상차관보 주재로 외교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예산처, 관세청, 국가기후위기 대응위원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범부처 탄소국경조정제도 종합 대응 작업반’ 회의를 열었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따른 이른바 ‘수입 탄소관세’는 일반적인 관세와 달리 수입 통관 시점이 아니라, 통관이 이뤄진 다음 해에 부과된다. 이 때문에 수출기업 입장에서 제도 시행 초기에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는 체감 부담이 크지 않지만, 내년부터는 EU 수입업자의 요구에 따라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불확실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CBAM 적용 대상은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소, 전력 등으로, 해당 품목을 EU로 수출하는 기업은 매년 제품 단위 탄소배출량을 산정하고, 그 결과를 이듬해 검증받아야 한다. 특히 내년부터는 탄소배출량 산정 결과에 대한 공식 검증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정부는 협·단체와 협력해 수출기업이

CBAM 제도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제도 대응 방법을 보다 구체적으로 안내하기 위해 설명회와 교육·연수 과정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업들이 탄소배출량을 원활히 산정할 수 있도록 기존 관련 지원사업 활용을 독려하고, 향후 검증 수요 증가에 대비해 국내 검증기관 확보 등 대응 인프라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박정성 통상차관보는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시행은 우리 수출업체에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며 “정부는 해당 제도가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EU 측과 지속 협의하는 한편, 우리 업체가 제도 변화를 저탄소 전환과 경쟁력 제고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이행과 생산체제 구축을 빈틈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논의된 지원 방안을 바탕으로 후속 준비에 착수하고, EU와 제도 관련 추가 협의를 이어가며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미래직업관 내부 전경.

/한국잡월드

한국잡월드 “미래 신직업 체험해보세요”

500평 규모 ‘미래직업관’ 개관

인공지능(AI) 반도체 개발자, 핵융합로 엔지니어 등 미래 신직업 18종을 한자리에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문을 연다.

종합직업체험관 한국잡월드는 경기도 성남 한국잡월드 2층에 약 500평 규모의 ‘미래직업관’을 22일 개관한다고 밝혔다.

미래직업관은 단순히 직업을 소개하는 것을 넘어, 기후변화와 보안 위협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실제 문제 상황을 체험하고, 첨단기술을 활용한 해결 과정을 경험하도록 설계됐다. 8개 테마, 17개 구역으로 구성됐으며 총 18개의 미

래 직업을 체험할 수 있다.

체험관은 미래도시에서 직업인이 되 체험한다는 컨셉트에 맞춰 ▲주제 영상관 ▲인공지능(AI)의 일상화 ▲미래에너지 개척 ▲인구구조의 변화 ▲초연결 사회의 가속 ▲가상과 현실의 통합 ▲기후변화와 재해 대응 ▲인공지능(AI)과 미래의 나 등으로 구성됐다.

체험은 1회 1시간 기준으로 하루 5회 운영되며, 참가자는 자유롭게 구역을 이동하며 관심 직업을 선택해 체험할 수 있다. 각 구역은 방탈출게임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구성돼, 청소년들이 능동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미래 직업 역량을 체득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세종=한용수 기자

농식품부 “농촌공간정책 연내 성과 창출”

농촌공간계획 전담지원반 구성
“지방정부 주도 발전전략 뒷받침”

정부가 21일 ‘농촌공간계획’의 전국적 안착 및 성과 창출을 위한 추진방향 및 올해 중점과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주거환경 개선과 축산·융복합산업 집적화 등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간정책 성과를 연내에 내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139개 시·군이 농촌공간계획 수립을 마치고, 각각의 농촌특화지구 발굴·육성에 나서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농촌공간계획 제도는 2024년 3월 ‘농촌공간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도입됐다. 중앙정부가 설계한 일률적 개발 방식에서 벗어나 시·군이 지역 여건과 주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상향식 계획을 수립하면 정부가 이를 통합 지원하는 방식이다.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시·군은 농촌공간계획을 지역발전의 지도로 삼아 주거, 융복합산업, 경관 등을 기능별로 구획하고 농촌특화지구를 지정·육성한다. 유형은 농촌마을보호, 농촌산업, 축산, 농촌융복합산업, 재생e, 경관농업, 농업유산, 특성화농업지구 등이다. 현재 농촌지역 139개 시·군이 정주여건 개선과 경제활성화 등을 위한 농촌공간계획을 수립 중이다.

농식품부는 특히 ‘중앙지원기관’과 함께 올해 전국 시·군의 농촌공간계획 수립을 핵심 과제로 꼽고 전담지원반을 구성하기로 했다. 중앙지원기관으로 지정된 곳은 한국농어촌공사,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 등이다.

전담지원반은 기관별 담당 권역을 정해 계획 수립 상황을 점검하고 행정 지원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향후 정기 실무협의체 운영 등도 추진한다. 농촌 정책과제 추진 과정에서 협력 분야를 넓힌다는 구상이다.

농식품부의 박순연 기획조정실장은 “2026년은 농촌공간계획 제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중앙지원기관과 협업해 제도가 현장에 안착하도록 하고, 지방정부 주도의 발전 전략이 실현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해수부, ‘어촌뉴딜3.0 사업’ 공모 설명회

성과사례 발표·사업 시행지침 안내

해양수산부가 ‘2027년도 어촌뉴딜3.0 사업 공모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달 22일 부산, 30일 대전에서 예정돼 있다.

어촌뉴딜3.0 사업은 인구 감소와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낙후된 어촌·어항을 연계·통합해 어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어촌·어항재생사업이다.

어촌·어항재생사업은 2019년 이후 순차적으로 ▲어촌뉴딜300 ▲어촌신활력증진 ▲어촌뉴딜3.0 사업으로 추진돼 왔다.

현재의 어촌뉴딜3.0사업은 어촌지역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재정 투입을 마중물로 해 민간투자를 유도하는 ‘어촌경제도약형’, 낙후된 어촌의 생활·안전 기반을 개선하는 ‘어촌회복형’의 두 가

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어촌경제도약형’은 10억 원 이상의 민간투자를 유치하면 유치 규모에 따라 재정을 차등적으로 지원한다. 이는 어촌 특성에 맞는 중·소규모 민간투자를 더욱 적극적으로 유치해, 다양한 형태의 관광·상업시설을 유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어촌회복형’은 어촌지역 주민들의 생활·안전 기반을 종합적인 형태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 유형이다.

공모 설명회에서는 그간 어촌·어항재생사업 성과사례를 발표하고, 개정된 사업 시행지침의 주요 내용을 안내한다. 아울러 어촌뉴딜3.0 신규사업지 공모와 관련해 사업 유형 개편, 전년도 공모 대비 주요 변경사항, 공모 일정 등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소개할 예정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노동부, ‘AI노동법 상담 서비스’ 고도화

이용자 급증… 올해 28억 예산 투입

고용노동부의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가 일상 속 노동법 길잡이로 빠르게 자리 잡고 있다. 지난해 지역 커뮤니티 플랫폼 ‘당근알바’에 탑재된 이후 이용자가 급증하며, 야간·주말에도 끊임 없는 상담 수요를 흡수하고 있다는 평가다.

노동부는 21일 ‘AI 노동법 상담’의 2025년 운영 실적과 이용자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누적 상담 건수는 11만 7000건으로 집계됐다. 임금·근로시

간·실업급여 등 기본적인 노동법 질의를 실시간으로 처리하며 노동 행정의 인공지능 전환(AX)을 가속화했다는 설명이다.

가장 큰 변화는 접근성이다. 지난해 9월 ‘고용노동행정 AX Summit’을 계기로 ‘당근(당근알바)’에 서비스를 탑재한 이후 일평균 이용 건수는 251회에서 466회로 85.7% 늘었다. 올해 1월에는 일평균 1000건을 넘어섰다. 전체 이용자의 37.7%가 야간·주말에 접속해, 시간 제약 없이 이용 가능한 ‘24시간 노동법 상담’ 수요가 확인됐다.

/세종=한용수 기자

정보 탐색 효율도 크게 개선됐다. 노동부가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와 수행한 ‘생성형 AI 기반 노동법 상담 비용·편익 분석 연구’에 따르면 기존 포털 검색 대비 노동법 정보 탐색 시간은 87.5%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올해 28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서비스를 한 단계 더 고도화한다.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를 사진으로 업로드하면 법 위반 여부를 분석하는 기능을 도입하고, 권리 침해가 명확한 경우 노동포털과 연계해 사건 접수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상담 범위도 임금·근로시간·실업급여에서 직장 내 괴롭힘, 산재 보상 절차, 고용허가제 등으로 확대한다.

광해광업공단, 폐광지역 기업 융자지원

태백·삼척·영월·정선·문경 등 대상

한국광해광업공단(KOMIR)이 폐광지역 기업의 투자 부담을 덜고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대체산업 융자지원사업을 추진한다.

KOMIR는 21일 ‘2026년 폐광지역 대체산업 융자지원사업’ 공고를 내고 지원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강원 태백·삼척·영월·정선, 경북 문경, 충남 보령, 전남 화순 등 폐광지역 7개 시·군의 폐광지역 진흥지구 또는 지정 대상 농공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이다.

대상업종은 제조업(반려동물 연관산업 포함), 광업(석탄 제외), 관광·레저업, 문화콘텐츠 산업이다.

지원 내용은 시설자금 최대 30억원, 운전자금 최대 10억원으로, 올해 1분기 기준 연 1.75% 금리(분기별 변동금리)로 융자 지원된다. 상환 조건은 시설자금의 경우 5년 거치 후 5년 균등상환, 운전자금은 2년 거치 후 3년 균등상환이다.

신청 기간은 1월 21일 ~ 2월 19일까지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를 참고해 관할 시·군청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세종=한용수 기자

건강창업의 모든 것!



공식 파트너 모집

“대한민국 건강을 지켜온 30년의 노하우,
이제 당신의 성공비즈니스가 됩니다.”

대한홍삼 건강백화점이란?

건강에 대한 모든 해답을 한 곳에!

대한홍삼 건강백화점은 인기 있고, 가성비 좋은 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제품을 한자리에 모아
고객이 직접 체험하고,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결합 매장입니다.

• 취급품목

다양한 브랜드 홍삼 / 다양한 브랜드 건강식품 / 다양한 브랜드 건강기기 / 다양한 브랜드 건강의류
다양한 브랜드 건강용품 / 의료기기 등

• 판매방법

매장 / 웹카탈로그(도·소매) / 복지쇼핑몰(회원판매) / 체험방 / 특판 / 방판

차별화된 경쟁력

- ✓ 무자본부터 대형 매장까지
- ✓ 인기 있고 이윤 높은 건강상품을 지속적으로 공급
- ✓ 자사 TV방송국(브레인TV)을 통해 많은 시간 지속적으로 광고하고 제품 판매를 지원하는 건강강좌 프로그램 제공
- ✓ 웹카탈로그 시스템 지원 (홍보, 신규영업, 매장상품 관리)
- ✓ 복지몰 시스템 지원 (신뢰 기반의 고객 관리, 수익률 창출하는 새로운 기회)
- ✓ 30년 전통! 햅터그룹 및 협력사의 지원과 노하우의 집약 무료교육

창업비용

최저 창업비 (MIN. 398만원)로
최대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창업유형

유형 1. 매장 창업(일반매장, 건강체험관, 건강카페, 영업센터)
유형 2. 무점포 창업

BH 대한홍삼 [주] **창업문의 : 1522-7585**

www.koreahongsam.co.kr

본사 : 서울시 금천구 가마산로 96
대륭테크노타운8차 601호



Since 1996
햅터그룹
Haetter Group

(주)햅터
(주)햅터방송_브레인TV
(주)햅터라이프_햅터복지몰
한삼장홍삼(주)
대한홍삼(주)

경북도-대구, 행정통합 ‘연속추진’ 공식 합의

정부 지원 발표 후 통합 확인
통합특별시 지원·인센티브 가속
신공항 중심 교통·산업기반 강화
AI·로봇·바이오 미래산업 육성
낙후지역 소외방지·균형발전 촉구

경북도와 대구시는 20일 오후 3시 경북도청에서 만나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중단 없이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경북도와 대구시에 따르면 이날 회동은 정부가 지난 16일 발표한 행정통합 지원 방향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정부는 통합특별시 가칭을 대상으로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과 함께 통합특별시 위상 강화, 공공기관 이전 우대, 산업 활성화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시한 바 있다.

양 시도는 수도권 1극 체제가 한계에 이르며 지방 소멸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현 정부가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전환’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재차 제시한 만큼 행정통합 논의가 ‘진정한 지방시



이철우 경북도지사(오른쪽)와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이 20일 오후 3시 경북도청에서 만나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중단없이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대’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돼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또 대구·경북이 2020년부터 전국에서 가장 먼저 통합 논의를 시작해 공론화와 특례 구상 등을 축적해 왔고, 이 같은 논의 성과가 충청·호남권 등 다른 권역의 통합 논의에도 기반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중단 없이 이어가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양 시도는 정부 재정 지원이 단순한 비용 보전에 그치지 않고 지방이 포괄적이고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포괄보조’ 방식으로 설계될 가능성

에 주목하고 있다. 재정과 권한이 실질적으로 확보될 경우 통합신공항을 중심으로 교통·산업·정주 기반을 함께 끌어올리고, 경북 북부권 균형발전 투자와 동해안권 전략 개발, 광역 전철망 확충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미래모빌리티, AI, 로봇, 바이오 등 첨단 미래산업을 통합된 전략과 투자 아래 병행 육성해 대구·경북의 성장 구조 전환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통합 추진 과정에서 경북 북부 지역 등 낙후지역이 소외되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국가 차원의 균형발

전 대책이 제도적으로 담보돼야 하며, 중앙정부의 권한·재정 이양이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실행을 보장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통합을 통해 시·군·구의 권한과 자율성 확대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 했다.

경북도는 앞으로 도의회와 충분히 협의한 뒤 통합 추진을 위한 의결 절차를 밟고, 시·군·구와 시·도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나갈 계획이다. 양 시도는 국회와도 긴밀히 공조해 특별법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통합 절차를 책임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철우 지사와 김정기 시장대행은 “통합이 진정으로 성공하려면 국가 차원의 낙후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확실한 대책이 마련되고 중앙정부의 과감한 권한 이양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통해 통합특별시는 경제·산업 육성, 균형발전·광역행정에 대한 총괄·조정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하고, 시군구의 권한과 자율성 확대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북=김준한 기자 kih9@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해남군

해남~광주 고속도로, 12월 개통

광주~해남~완도를 연결하는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올 12월 광주~강진 구간 개통을 앞두고 있다. 도로가 완공되면 해남에서 광주까지 이동시간은 기존 80분에서 50분으로 단축돼 광역도시권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올해 완공되는 노선은 광주광역시 서구 벽진동에서 출발해 강진군 성전면에서 남해 고속도로와 분기점(JCT)으로 연결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강진에서 해남 남창을 잇는 2단계 구간은 지난해 8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고 현재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 중이다.

/해남(전남)=이대호 기자 eogh7505@

부산시

어린이 교통안전 118억 투입

부산시는 어린이 교통안전 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사업비 118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시는 2023년 수립한 ‘어린이 통학로 종합안전대책’ 4개년 계획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물 확충에 나선다. 올해는 노란색 횡단보도 설치와 미끄럼 방지 포장 등 시인성 강화 사업 253곳, 방호울타리 설치 24곳, 불법 주정차 단속 감시 카메라(CCTV) 5대, 보도 설치 1곳 등 총 283곳을 개선할 계획이다.

시는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시인성 강화 사업 429곳, 방호울타리 설치 249곳, 불법 주정차 단속 감시 카메라 41대, 보도 설치 25곳 등 총 744곳의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을 완료했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경남도

고용률 63.3% ‘역대 최고’

경상남도는 2025년 연간 고용률이 63.3%를 기록하며 2000년 통계 작성 이래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국가데이터처의 ‘2025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을 분석한 결과다. 이는 전년(62.1%) 대비 1.2%p 오른 수치로, 전국 평균(62.9%)보다 0.4%p 높다.

국가데이터처의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경남의 취업자는 179만 9000명으로 전년보다 4만 1000명(2.3%) 늘었다. 2020년 60.6%를 기록한 후 지속 상승한 결과다. 성별로는 남성이 71.2%, 여성이 55.3%의 고용률을 보였으며 각각 전년 대비 1.2%p씩 올라 남녀 모두 고른 회복세를 나타냈다.

/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포항시

영일대 특급호텔 건립 본격화

포항 최초의 특급호텔 건립사업이 민관 사업협약 체결과 함께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섰다. 포항시는 20일 서울 여의도 하나증권 본사 사옥에서 영일대해수욕장 공영주차장 부지를 활용한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사업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강덕 포항시장을 비롯해 하나증권, 대우산업개발 등 민간사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특급호텔 조성을 중심으로 한 복합해안레저관광도시 조성에 뜻을 모았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하나증권은 민관협력을 통해 투자에 참여하고, 금융 구조 설계와 자문을 맡아 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전문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포항(경북)=김진곤 기자

태화강역 ‘트램 1호선 거점’ 준비

울산, 시비 55억 투입 교통개선 추진

울산시는 20일 오후 3시 태화강역에서 ‘태화강역 2단계 교통 체계 개선 사업’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앞으로 도시철도 트램 1호선 종착역이 될 태화강역을 울산 도시교통의 핵심 거점으로 키우기 위해 2023년부터 진행됐다. 총사업비 55억 원을 전액 시비로 투입했다.

울산시는 기존 산업로에서 양방향으로 들어오던 내부 도로를 길이 220m, 폭 30m 규모의 일방통행 체계로 바꿔 도로 운영 효율성과 교통 수용 능력을 높였다. 또 버스 승강장과 육교를 새로 지어 대중교통 이용객의 철도 접

근성을 개선하고 환승 편의를 크게 향상시켰다.

공사는 2024년 12월 시작돼 역사 운영 중단 없이 시민들의 협조와 철저한 공정 관리 속에서 약 1년 만에 마무리됐다.

이날 준공식에는 안효대 울산시 경제부시장을 비롯해 지역 국회의원과 시·구의원,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안효대 경제부시장은 “태화강역 2단계 교통 체계 개선 사업으로 시민과 방문객 모두가 더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지능형 교통 기반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울산=박기성 기자 metrobusan7@

경주, 새 학기부터 ‘버스비 0원’

만 18세 어린이·청소년 무료 추진

경주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만 18세 이하 어린이와 청소년의 요금이 오는 3월 새 학기부터 무료가 될 전망이다.

경주시는 어린이·청소년의 교통비 부담을 덜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내버스 요금 전액 지원을 골자로 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례안이 시의회 심의를 통과하면 6세 이상 18세 이하 어린이·청소년은 기존 교통카드를 이용해 경주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제도 시행 시기는 새 학기가 시작되는 오는 3월로 잡고 있다.

경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시내버스 이용 실적은 어린이 18만 2,959건, 청소년 163만 2,298건으로 집계됐다. 현재 시내버스 이용요금은 어린이



경주시내 한 버스정류장에서 청소년들이 시내버스에 승차하고 있다.

800원, 청소년 1,200원이다.

이를 바탕으로 산정한 연간 소요 예산은 약 31억 5,800만 원으로 추정되며, 재원은 전액 시비로 조달할 계획이다. 다만 올해는 3월부터 시행되는 만큼 2개월이 빠진 10개월분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다. 경주시 거주 어린이·청소년은 지난해 말 기준 모두 2만 2,664명이다.

/경주(경북)=김진곤 기자 jingon@

칠곡군,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내달 5일 군청 3층 강당서 진행

칠곡군은 오는 2월 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칠곡군청 3층 강당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칠곡군에 따르면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과 협업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상담반이 현장을 직접 찾아가 주민들의 고충을 듣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현장 민원 상담 제도다.

상담 분야는 행정·문화·교육을 비롯해 국방·보훈, 경찰, 세무·재정, 복지·노동·방송·통신, 산업·농림·환경, 주택·건축, 도시·수자원, 도로·교통 등 전 행정 분야를 망라한다. 또 대한법률구

조공단과 한국소비자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협업기관이 참여해 법률 상담과 소비자 보호, 사회복지 등 전문 상담 서비스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상담은 현장에서 즉시 해결이 가능한 사안은 안내나 합의를 통해 종결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고충 민원으로 접수해 정밀 조사와 심의를 거쳐 처리하게 된다.

칠곡군 관계자는 “행정기관 방문이 어렵거나 인터넷 이용이 익숙하지 않아 민원 해결에 어려움을 겪었던 군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칠곡(경북)=김준한 기자

양산, 신중년·장년 맞춤형 고용지원 추진

40~64세 채용 기업 200만원 지급

경남 양산시는 신중년·장년층 미취업자의 일자리 창출과 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맞춤형 고용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크게 두 가지 트랙으로 운영된다. 먼저 신중년 고용지원금 지원사업은 40세 이상 64세 이하 신중년 미취업자를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기업이 6개월간 고용을 유지할 경우 근로자 1인당 200만원의 고용지원금을 지급한다. 기업당 최대 5명까지 신청 가능하며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장년 고용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50세 이상 장년 미취업자를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 후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1년간 4대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을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분기별 최대 50만원, 1인당 연간 최대 2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된다.

두 사업 모두 양산시에 본사 또는 공공장을 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제조업 관련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근로자는 채용일 기준 양산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양산(경남)=손병호 기자

CJ올리브영, 세포라와 손잡고 K-뷰티 글로벌 열풍 이끈다

‘K-뷰티 존’ 설치·상품 공개
6개 지역서 K-뷰티 진출 시작
중소·인디브랜드 해외확장 지원
올리브영, 미국 1호점 오픈 예정

CJ올리브영이 세계 최대 뷰티 유통사 세포라와 협력해 ‘K뷰티’ 기반 글로벌 비즈니스를 본격 주도한다. 올리브영은 시장별 특성을 반영한 최적의 유통망 구축과 국내 브랜드 육성으로 K뷰티 세계화를 이뤄내고 있다.

CJ올리브영은 세포라와 공식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세포라 온·오프라인에 ‘K뷰티 존’이 설치되고 올리브영이 ‘직접’ 구성한 K뷰티를 전격 공개한다.

올리브영은 세포라 기준에 따라 매대 구성, 상품 제안, 브랜드 정체성에 부합하는 마케팅 설정 등 K뷰티 존 전체 기획을 담당한다. 세포라는 매장 공간을 제공하고 현지 유통·판매를 맡는다.

오는 하반기 북미(미국·캐나다), 아시아 주요 국가 등 총 6개 지역에서 우선



지난해 8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KCON LA 2025’에서 올리브영은 K뷰티 부스를 운영했다. /CJ올리브영

시작하며 향후 중동·영국·호주를 포함한 전 세계 세포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번 협업을 통해 올리브영은 K뷰티 브랜드의 글로벌 진출을 더욱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K뷰티 핵심 주축인 중소·인디 브랜드가 해외 유명 유통망에서 성장 기반을 확보하도록 현실적, 구조적 한계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둔다. 규모가 크고 인지도가 높은 메이저 리테일 진출을 지원함으로써 국내 브랜드와 현지 소비자의 접점을 늘린다는 복안이다.

세포라의 경우, 매장 밖에서도 세포라 주관 팝업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인프라를 갖춰 K뷰티 브랜드의 참여 기회가 검토될 것으로 기대된다. ‘K뷰티’라는 하

나의 새로운 영역 구축으로 시장 전반에서의 집중도는 획기적으로 높이는 동시에 단일 브랜드가 각각 효과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맞춤형 전략을 유기적으로 이어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올리브영은 해외 시장에서 K뷰티 매출 증대를 실현해 K뷰티 확산세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올리브영은 2019년부터 온라인 역직구 창구 ‘글로벌몰’을 운영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초석을 다져 왔고 올해는 ‘올리브영 미국 1호점’이 문을 연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글로벌몰 회원수는 336만 명에 달하며 이용 가능 국가 수는 150여 개로 늘었다. 같은 기간 글로벌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70% 증가해 역대급 실적을 올렸다. 글로벌몰 내 중소브랜드 매출 성장세 또한 2023년 91%, 2024년 76% 등으로 집계됐다.

글로벌몰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올리브영은 오는 5월 캘리포니아 패서디나에 올리브영 미국 1호점을 내놓는다. 이후 올해 안에 로스앤젤레스 웨스트필드 등

에 순차적으로 오프라인 매장을 추가할 계획이다.

올리브영은 이러한 독자 경쟁력에 세포라 같은 강력한 현지 리테일러와의 파트너십을 더해 ‘K뷰티 글로벌 유통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완성한다는 구상이다.

올리브영 관계자는 “세포라는 전 세계 뷰티 트렌드를 이끄는 플랫폼으로 K뷰티를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최적의 파트너”라며 “국내 유망 브랜드들이 세포라와 같은 공신력 있는 채널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제 가치를 보여줄 수 있도록 안정적인 수출 생태계를 이끌겠다”고 말했다.

세포라의 글로벌 최고상품책임자(CMO) 프리야 벤카테시는 “K뷰티는 뷰티 산업 전반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높은 선호도를 보이는 카테고리”라며 “올리브영의 차별화된 상품 구성, 세포라의 뷰티에 대한 관점, 전 세계 뷰티 팬들의 쇼핑 경험이 결합되면서 독보적인 K뷰티를 제안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전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롯데백, 하이엔드 위스키 시장 공략

페르노리카 코리아와 업무협약
‘아벨라워 50년산’ 국내 최초 공개
차별화된 프리미엄 쇼핑 경험 제공

롯데백화점이 글로벌 주류 기업 페르노리카 코리아와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국내 하이엔드 위스키 시장 선점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양사는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롯데백화점만의 차별화된 프리미엄 주류 서비스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페르노리카가 보유한 최상위 싱글몰트 라인업의 고연산·한정판 상품을 롯데백화점에서 단독으로 출시하고, 우수 고객(VVIP)을 위한 프라이빗 체험 콘텐츠를 도입하는 등 협력을 강화한다.

가장 먼저 이달 28일에는 전 세계적으로 단 20명만 한정 생산된 희귀 위스키



롯데백화점 임형빈 F&B 부문장(왼쪽)과 페르노리카 코리아 김경연 마케팅 전무(오른쪽)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모습. /롯데백화점

‘아벨라워 50년산’을 롯데백화점에서 국내 최초로 공개한다. 이 제품은 아벨라

워 브랜드 역사상 가장 오래된 연산의 제품으로, 위스키 애호가와 수집가들 사이에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모델이다.

지역 고객과의 접점도 넓힌다. 오는 2월 부산 권역에서는 ‘발렌타인 글렌버기’, ‘더 글렌리벳’, ‘아벨라워’ 등 페르노리카의 대표 싱글몰트 위스키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특별 프로모션을 진행해 지방 고객들에게도 프리미엄 위스키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롯데백화점 김승영 와인&주류팀장은 “글로벌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롯데백화점에서만 만날 수 있는 희소성 높은 상품과 품격 있는 서비스를 선보이게 됐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에게 차별화된 프리미엄 쇼핑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종욱 기자 handbell@

신세계백, 기순도 명인과 전통 장 담그기

설 맞이, 전통 장 담그는 체험 선물
6월과 9월, 숙성된 된장·간장 배송
2인기준 125만원, 내달 14일까지 신청

신세계백화점은 설 명절을 맞아 기순도 명인과 함께 전통 장을 직접 담가보는 체험형 선물 프로그램 ‘나만의 장 만들기’를 선보인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신세계백화점의 여행 콘텐츠 ‘로컬이 신세계’의 일환으로 기획됐다. 단순히 완성된 제품을 주고받는 기존 명절 선물의 틀을 깨고, 1년이라는 시간을 들여 우리 식문화의 가치와 경험을 선물한다는 취지다.

프로그램은 오는 3월 전남 담양에 위치한 기순도 명인의 장고(장 보관소)에서 시작된다. 참가자는 명인의 지도 아

래 전통 방식대로 메주를 다듬고 염수를 넣어 장을 담근 뒤,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20리터 장독에 보관하게 된다. 이후 약 3개월 뒤인 6월에 다시 방문해 간장과 된장을 가르는 작업을 직접 수행하고, 9개월간의 추가 숙성을 거쳐 완성된 된장(약 4kg)과 간장(약 3.5kg)을 집으로 배송받는다.

참가자들에게는 장을 담그는 날과 가르는 날, 명인이 지역 식재료로 직접 준비한 발효 한상 식사가 제공되어 미식 여행의 즐거움도 더할 예정이다. 참가 신청은 다음 달 14일까지 신세계백화점 본점과 강남점 설 선물 판매 데스크에서 가능하며, 가격은 2인 기준 125만 원이다.

신세계백화점 이성한 영업전략담당 상무는 “명절 선물의 의미가 단순한 상



신세계백화점이 ‘로컬이 신세계’로 체험형 선물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신세계백화점

품 전달에서 특별한 경험을 공유하는 것으로 확장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문화와 장인 정신을 고객의 일상과 연결하는 차별화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손종욱 기자

홈플러스, AI 분석으로 ‘최적가 장보기’

멤버십 회원을 위한 특가 혜택 마련

홈플러스는 고객 구매 데이터를 인공지능(AI)으로 분석해 핵심 장보기 품목을 최적가에 선보이는 ‘AI 물가안정 프로젝트’를 이달 22일부터 28일까지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설 명절을 앞두고 장바구니 부담이 커지는 시기를 고려해 신선식품, 가공식품, 주방용품 등 다양한 카테고리의 상품을 파격적인 가격에 준비했다.

우선 주요 신선식품을 할인가에 선보인다. 7대 카드(신한·삼성·롯데·NH농협·우리·하나·비씨)로 결제 시 ‘보리먹고 자란 돼지(보맥돼) 삼겹살·목심(100g)’은 40% 할인된 1554원에, ‘제스프리 골드키위(팩)’는 5000원 할인된 9990원에 구매할 수 있다. ‘완도 전복’은 전 품목 반값 행사를 진행해 마리당 1990원부터 선보인다.

멤버십 회원을 위한 특가 혜택도 마련했다. ‘손질 오징어’와 ‘진도 알배기·봄



홈플러스가 AI 물가안정 프로젝트를 통해 파격적인 가격에 장보기 품목을 선보인다. /홈플러스

동’은 50% 할인된 가격에 제공하며, ‘양배추’와 ‘간마늘’, ‘시금치’ 등 필수 채소류도 1000~3000원 할인된 가격에 만날 수 있다. 떡볶이, 유부초밥, 피자 등 간편식과 식재료 10여 종은 1+1 혜택을 제공한다.

/손종욱 기자

무신사, 롯데 잠실에 대규모 스토어 오픈

100여개 브랜드, 다양한 큐레이션 존

무신사가 롯데백화점 잠실점에 대규모 오프라인 편집숍을 열고 백화점 유통망 확장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무신사는 이달 23일 서울 송파구 롯데백화점 잠실점 2층 ‘키네틱 그라운드’ 내에 약 892.5㎡(268평) 규모 ‘무신사 스토어 롯데백화점 잠실점’을 연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매장은 무신사 스토어가 백화점에 입점하는 첫 번째 사례다. 그동안 홍대, 성수 등의 가두점(로드숍)과 용산 아이파크몰 등 복합쇼핑몰 스텝인숍 형태로

운영해온 무신사는 이번 잠실점 오픈을 통해 백화점까지 오프라인 영토를 확장하게 됐다. 특히 잠실점은 K-패션 전문관인 키네틱 그라운드 내에 자리 잡아 젊은 층과 외국인 관광객 공략에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매장은 잠실 상권의 핵심인 2030 세대의 취향을 고려해 구성됐다. ‘더컬디스트모먼트’, ‘미세키서울’, ‘아캄’ 등 무신사가 엄선한 100여 개 브랜드가 입점하며 겔즈, 영, 스포츠, 슈즈 등 다양한 큐레이션 존을 통해 차별화된 쇼핑 경험을 제공한다.

/손종욱 기자

SK바사, ‘통합 컨트롤타워’ 구축… 글로벌 공략 발판 마련

개발·생산 등 전 과정 유기적 연결
COO 신설… 신규 파이프라인 총괄
전문가 추가 영입 등 개발 역량 확대

SK바이오사이언스가 전사 운영 체계를 고도화하고, 개발부터 생산까지의 전 과정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통합 경영 체제를 가동한다. 송도 시대의 개막과 함께 경영 조직을 재정비하며 중장기 성장 전략 실현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전사 밸류체인을 통합 관리하는 최고운영책임자(COO) 직책을 신설하고, 박진선 마케팅&사업개발 본부장을 선임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와 함께 글로벌 수준의 제조 및 품질 경쟁력을 확보코자 이상윤 전(前) 삼성바이오로직스 기술지원센터장을 L 하우스(HOUSE) 공장장 겸 바이오(Bio) 연구본부장으로, 이범한 한미약품 QA그룹장을 QE(Quality Excellence) 실장으로 신규 영입했다.

이번 인사는 백신 개발과 상업 생산,



박진선 최고운영책임자.

글로벌 협력이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 작동하는 ‘통합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기 위해 단행됐다. 현재 사노피와 공동 개발 중인 차세대 21가 폐렴구균 백신이 글로벌 임상 3상을 순조롭게 진행 중이고, 신규 백신 과제들이 본격적인 개발 단계에 진입함에 따라 이를 뒷받침할 운영 최적화가 필수적이라는 판단이다.

특히 송도 글로벌 R&PD 센터로의 이전을 계기로 연구 및 공정 인프라가 대폭 고도화되는 만큼, 이에 걸맞은 경영



SK바이오사이언스 송도 글로벌 R&PD 센터 전경.

효율성을 확보하고 파트너사와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강화해 글로벌 시장 공략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박진선 신규 COO는 서울대 약학과 출신으로 해외사업개발실장, BD(비즈니스 개발) 본부장, 마케팅&사업개발 본부장 등을 거친 글로벌 비즈니스 전문가다. 연구기획부터 사업개발까지 아우르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자체 개발 제품의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규 파이프라인의 상업화 준비 전반을 총괄

하게 된다.

안동 L HOUSE 공장장을 겸직하는 이상윤 Bio연구본부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에서 대규모 상업 생산 및 기술 이전을 주도한 공정 혁신 전문가다. 이 공장장은 L HOUSE 운영과 Bio연구본부를 연계해 초기 연구 단계부터 글로벌 공급을 고려한 최적의 제조 공정을 설계할 계획이다.

글로벌 품질 경영을 책임질 이범한 QE 실장은 20년 이상 품질 보증(QA)

업무를 수행하며 미국 식품의약국(FDA) 등 글로벌 규제기관의 제품 승인을 이끌었다. 이 실장은 주요 파이프라인의 글로벌 진출에 부합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품질 관리 체계 확립에 주력할 계획이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글로벌 백신·바이오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문가 영입을 지속하고 있다. 지난해 말에는 LG화학 등에서 바이오의약품 생산과 공정기술 전반을 경험한 조봉준 부사장을 신규임원으로 영입, 글로벌 제조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을 다진 바 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올해 인천 송도 국제도시에 구축한 ‘글로벌 R&PD (Research & Process Development) 센터’로 본사 및 연구소 이전을 완료하며 송도 시대를 새롭게 열었다. 새로운 연구·생산 거점과 전문 인력 등 장기 성장 전략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인프라를 갖추고 프리미엄 백신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고 주요 백신 개발 역량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롯데웰푸드, 소비자 물가 부담 낮춘다

가나·빼빼로 등 160여개 품목 할인
일부 제품은 자체적으로 가격 인하

식품업계의 원가 부담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상기후, 국제 정세 불안 등이 이어지면서 원재료, 환율, 인건비 등 각종 제반 비용이 불안정한 구조를 보이고 있어서다.

특히 국내 식품업계는 대부분의 원재료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환율 변동과 국제 원자재 가격의 등락이 곧바로 제조원가에 영향을 미친다.

이같은 환경 속에서 롯데웰푸드는 원가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기보다 체감 물가 부담을 낮추는 것에 동참했다.

롯데웰푸드는 다가오는 2월 설 명절을 앞두고 마트와 슈퍼, 편의점 등 주요 유통 채널 10곳에서 순차적인 할인 행사에 돌입했다. 이번 행사에는 40여개 브랜드의 160여개 품목이 포함됐다. 가나, 빼빼로, 자일리톨, 카스타드, 꼬깔콘 등 대표 브랜드를 비롯해 제로(ZERO), 조이(JOEE), 이지프로틴 등 신성장 브랜드들이 함께 한다. 유통 채널별로 단순 가격 할인부터 ‘2+1 행사’ 등 다



롯데웰푸드 제품들.

양한 방식의 프로모션이 진행된다.

또한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를 맞아 해 추가적인 할인 행사 계획도 준비하고 있다.

롯데웰푸드는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일부 제품에 대해서는 가격 자체를 조정하는 방식도 병행해 왔다. 지난해 5월에는 ‘이지프로틴 고단백질바 크리스피(50g)’의 편의점 소비자가격을 기존 3000원에서 2500원으로 인하했으며, ‘이지프로틴 고단백질바 크리스피

미니(160g)’ 역시 8800원에서 8100원으로 낮췄다.

또 7월부터는 ‘컴포트잇츠이너프’ 브랜드 일부 제품의 가격도 최대 21% 낮췄다. ‘컴포트잇츠이너프 골든츄이바’를 ‘컴포트잇츠이너프 시리얼 블랙퍼스트 바’로 제품명을 변경하고 가격도 인하했다. 바 타입은 기존 1600원에서 1500원으로 인하했으며 대용량 미니 타입은 기존 9500원에서 7500원으로 가격을 조정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맛·가성비 다 잡은 ‘실속형 간편식’ 눈길

이마트 트레이더스 전용 상품 선택

지속적인 경기 불황과 고물가로 실속형 대용량 간편식이 인기를 끌고 있다.

신세계푸드는 이마트 트레이더스 전용 실속형 대용량 간편식으로 ‘꺄바로우’와 ‘바삭 고추튀김’을 선보였다고 21일 밝혔다.

‘꺄바로우’는 100% 국내산 돼지고기 등심과 찹쌀가루를 사용해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전문점 수준의 꺄바로우를 맛볼 수 있는 1.3kg의 중식 간편식이다. 특히 새콤달콤한 특제 소스 3개를 동봉해 집에서 여러 번 나눠 즐길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제품은 고물가 시대가 격에 민감한 소비자 수요를 반영해, 기존 신세계푸드의 유사 메뉴 소용량 제품(400~500g) 대비 중량은 두 배 정도 늘리고, 단위 중량당 가격은 약 30% 낮춘 것이 특징이다.

‘바삭 고추튀김’은 국내산 통오리고추



트레이더스 대용량 간편식.

/신세계푸드

에 신선한 돼지고기, 두부, 채소 등을 풍부하게 채워 넣은 900g의 튀김류 간편식이다. 두 제품 모두 신세계푸드 자체 냉동공법을 접목해 장시간 보관해도 맛과 품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개발됐다.

신세계푸드의 ‘꺄바로우’, ‘바삭 고추튀김’과 같은 실속형 대용량 간편식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고물가가 이어지면서 합리적인 가격에 넉넉한 양을 즐길 수 있는 대용량 또는 묶음형 제품을 선호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신원선 기자

“예비부부라면 할인 혜택 놓치지 마세요”

롯데하이마트, ‘웨딩페어’ 혜택 강화

롯데하이마트가 예비 신혼부부의 가전 수요 증가세에 발맞춰 올해 ‘웨딩 페어’ 프로모션 혜택을 대폭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국내 혼인 건수는 2022년 역대 최저를 기록한 후 2023년과 2024년 2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롯데하이마트는 올해 혜택의 폭을 한층 넓혔다. 오는 1월 말까지 행사 상품 2% 할인에 구매 금액대별 최대 3% 할인을 더해 총 5%의 추가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특히 이번 행사는 삼성전자, LG전자 등 인기 브랜드 상품 구매 시 최대 80만 원을 할인해 주는 ‘브랜드 워크’나 제휴카드 할인 등 기존 혜택과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 강화된 혜택에 힘입어 이달 1일부터 19일까지 웨딩 페어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약 25%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롯데하이마트 김승근 통합마케팅실장은 “앞으로도 결혼 시장 트렌드와 고객 반응을 살펴 실질적인 혜택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손종욱 기자 handbell@

HLB글로벌, 노드큐어와 전기식 개발 맞손

연구부터 유통까지 전 단계 협력

HLB글로벌은 바이오 벤처 기업 노드큐어와 ‘차세대 건강기능식품 공동개발 및 임상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양사는 신규 기능성 소재의 연구개발에서부터 임상시험, 인허가, 제품화 및 글로벌 유통까지 전 단계에 걸쳐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지원 과제 공동 참여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양사가 보유한 각 역량을 결합해 차세대 건강기능식품 시장을 공략한다는 계획이다.

노드큐어는 마이크로바이옴 등 미생물과 천연물 소재를 기반으로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반려동물 면역항암제 등을 개발하고 있다.

/이청하 기자 mlee236@



지난 20일 HLB글로벌에서 김광재 HLB글로벌 대표(왼쪽)와 박종환 노드큐어 대표가 ‘차세대 건강기능식품 공동개발 및 임상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했다.

/HLB글로벌

2025
JIWOO
Production
Presents

Musical

어서 오세요, 휴남동 서점입니다

Welcome to the Hyunam-Dong Bookshop



2025.03.01 ~ OPENRUN 루미나아트홀

원작 황보름 <어서 오세요, 휴남동 서점입니다> 클레이하우스

총괄 프로듀서 황기현 | 각색·연출 박예슬 | 작곡·음악감독 김은지 | 안무감독 윤이나 | 무대디자인 주미영

조명디자인 손정은 | 음향디자인 안형록 | 의상디자인 백은경 | 무대제작 드림아트컴퍼니(주) | 제작PD 박민서 | 컴퍼니매니저 신희

주최·제작  극단지우 협찬  사파게절 티켓문의 NOL ticket 공연문의 02.332.4902



이노비즈협회, '회원서비스 공모전' 회원사와 맞손

이노비즈협회가 '2026년 회원서비스 공모전'을 통해 선정한 현대해상화재보험, 이데일리씨앤비, 옴니케어와 신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왼쪽부터)유영철 현대해상화재보험 상무, 안병현 옴니케어 상무, 정광천 이노비즈협회장, 오연근 이데일리씨앤비 상무, 김홍석 이노비즈협회 상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노비즈협회



홈앤쇼핑, 급여 우수리 모아 1200여만원 기부

홈앤쇼핑이 임직원들이 지난해 급여에서 발생한 우수리 금액을 자발적으로 모아 기부하고, 회사가 매칭그랜트 방식으로 동일한 금액을 더해 나눔 문화 확산에 동참했다. 21일 홈앤쇼핑에 따르면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조성한 급여 우수리 기부금과 회사의 매칭 기부금 1200여 만원을 전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 열매'에 기부했다. /홈앤쇼핑



유한양행, 바자회 수익금으로 장애인 자립 지원

유한양행이 연말 바자회 및 경매에서 조성한 약 5000만원의 수익금을 장애인 자립을 위해 기부한다고 21일 밝혔다. 유한양행은 지난해 12월 23~24일 유한양행 본사와 연구소, 공장에서 바자회를 열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임직원의 적극적인 참여로 역대 최대 수익금을 기록했다.

/유한양행



동아에스티, 공정거래자율준수 강화 선포식

동아에스티는 지난 20일 경기 광주 소재 곤지암 리조트에서 '공정거래자율준수(CP) 강화 선포식'을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선포식에는 정재훈 사장(사진)을 비롯해 경영, 영업, 연구, 개발, 생산 부문 본부장 및 실장과 영업 권역장, 전 부서의 관리자 등이 참석했다. /동아에스티



GS리테일, '무지개상자 런치 연주회' 성료

GS리테일이 이달 20일 서울 GS아트센터 로비에서 '2026년 무지개상자 런치 연주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연주회는 GS리테일의 대표 사회공헌 프로그램인 '무지개상자'의 일환으로 기획됐다. 이날 무대에는 조직원 지휘자를 비롯해 '무지개상자 오케스트라' 소속 단원 40여 명이 올랐다.

/GS리테일

현대차 팰리세이드, '북미 올해의 차' 유틸리티 부문 선정

리프·그래비티와 2~3배 격차 “해당 차급의 새로운 기준 제시”

현대자동차 팰리세이드가 '2026 북미 올해의 차'에서 유틸리티 부문에 최종 선정되며 상품성을 인정받았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북미 올해의 차는 지난 14일(현지시각) 디트로이트 오토쇼에서 수상 결과를 발표한 후 공식 홈페이지에 부문별 후보 차들의 최종 점수와 심사평을 공개했다. 팰리세이드는 최종 투표 결과 270점을 획득해 2위 닛산 리프(135점)와는 두 배, 3위 루시드 그래비티(85점)와는 세 배 이상의 점수 격차를 기록하며 유틸리티 부문에 선정됐다.



현대차 팰리세이드.

미국과 캐나다의 자동차 전문 기자 50명으로 구성된 북미 올해의 차 심사위원단은 팰리세이드의 가격 대비 뛰어난 가치와 완성도, 상위 차급에

준하는 고급감과 편의 사양을 수상의 핵심 요인으로 꼽았다.

특히 차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팰리세이드의 주요 강점으로 꼽혔

CJ대한통운, 전시물류 과정 효율화

코엑스와 '엑스박스' 서비스 선택 국내 첫 AI 기반 전시화물 전용

CJ대한통운이 국내 대표 전시·컨벤션센터 코엑스와 손잡고 전시물류 전 과정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통합 물류체계 구축에 나선다.

CJ대한통운은 코엑스와 함께 국내 최초로 인공지능(AI) 기반 전시화물 전용 물류서비스 '엑스박스(ExBox)'를 출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엑스박스는 전시 일정과 규모, 취급품목, 부스 위치정보 등을 반영해 AI기반 자동배차 및 경로 최적화, 밀크런 방식의 집배송 운영 시스템을 구현한 전시물류 전용 서비스다. 밀크런 방식은 한 대의 차량이 여러 업체를 방문해 물품을 수거·배송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효율성을 높이고 운행 차량 수와 물류비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CJ대한통운은 전국 약 880여개 물류센터와 290여개 배송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엑스박스 물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코엑스는 전시 주최



지난 20일 서울시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전시물류 서비스 'ExBox' 공동 추진 업무협약 행사에서 CJ대한통운 최갑주 더운반그룹장(오른쪽)이 코엑스 김동욱 배뉴사업본부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CJ대한통운 제공

측 및 참가기업을 대상으로 엑스박스 이용을 적극 독려하는 한편 CJ대한통운 더운반그룹과 함께 서비스 기능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코엑스 김동욱 배뉴사업본부장은 “전시물류는 행사운영의 효율성과 안전에 직결되는 핵심요소”라며 “엑스박스 도입을 계기로 주차혼잡 완화와 함께 전시참가 기업과 방문객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품질 향상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bada@

크라운해태, 전국 16개 도시서 국악공연

임직원 공연 '크라운해태 한음회' 오는 28일 광주시에서부터 시작

과자회사 임직원들이 국악 명인명창들과 함께 고객들을 직접 찾아 전국에서 국악 공연을 펼친다.

크라운해태제과는 올해 1년간 전국 16개 도시에서 임직원 국악공연 '크라운해태 한음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크라운해태 한음회는 전통음악의 아름다움으로 고객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임직원들이 국악인들과 무대를 꾸미는 전통 국악공연으로 2024년 시작됐다.

첫해는 대전과 대구에서 2회 열렸고 지난해에는 부산(2회), 광주, 대구에서 4번 공연했고, 해외(일본 오사카 엑스포 특별공연)에서도 공연했다. 지금까지 연인원 1200명이 무대에 올

라 1만여명의 고객들을 만났다. 전석 해당 지역의 고객들을 초청해 임직원들이 고객사랑에 대한 감사를 직접 전하는 뜻 깊은 의미까지 담았다.

크라운해태제과는 올해부터 광역시를 중심으로 연간 4회 열렸던 임직원 국악 공연을 중소도시를 포함해 총 16회 공연으로 대폭 늘린다. 전문 예술인들 못지 않은 실력을 갖춘 임직원들과 국악인들로 구성된 공연단이 매달 1회 이상 지역 고객들과 전통 음악으로 만난다.

크라운해태 한음회 공연은 오는 28일 광주광역시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시작한다. 이어 2월 경주, 3월 전주, 4월 강릉을 찾아 공연하고 이후 주요 광역시와 중소도시를 찾아 전국 순회공연으로 16회 열린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장인화, '철강 탈탄소·공급망 협력' 강조

〈포스코그룹 회장〉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 참석 포스코 파빌리온 운영해 기술 소개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사진)이 지난 19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다보스포럼)에 참석해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한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방문이다.

21일 포스코그룹에 따르면 장 회장은 22일 열리는 '마이닝 앤 메탈스 거버넌스 미팅(Mining & Metals Governors Meeting)'에 참석해 기술 혁신을 통한 철강 탈탄소 전환과 글로벌 공급망 전반의 협력 확대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 미팅에는 세계 주

요철강사와원료사 최고경영자(CEO)들이 참석한다.

장 회장은 지난해 10월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CEO 서밋 기조연설에서도 지속 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글로벌 공급망 구축을 위한 다자간 협력과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포스코그룹은 다보스포럼 기간 '포스코파빌리온(POSCO Pavilion)'을 운영해 주요 기업인들과의 비즈니스 미팅을 지원하고, 수소환원제철 기술의 경쟁력도 소개할 계획이다.

/유혜은 기자 dhale@

넬담, 지난해 年 매출 330억… 104% ↑

〈전년비〉

고물가 속 외식 대신 간편식사 공략 저당·고단백 내세운 식사뽕 강화

푸드테크 기업 조인앤조인의 베이커리 브랜드 넬담이 고물가·경기 둔화 국면에서도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갔다.

넬담은 2025년 연간 매출 330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104% 증가했다고 밝혔다. 역대 최대 실적으로 불과 1년 만에 매출 규모를 두 배 이상 키운 셈이다.

업계에서는 고물가 환경 속에서 외식 대신 집에서 간편하게 한 끼를 해결하려는 수요가 늘어난 점이 주효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넬담은 이 같은 소비 흐름에 맞춰 '식사 대응 빵' 라인업을 강화하며 성장을 이끌었다.

실제 넬담은 기존 디저트 중심 제품군에서 벗어나 저당·고단백을 내세

운 식사뽕 제품군을 확장했다. 대표 제품인 뽕카롱, 베이글·쿠키류가 안정적인 매출 기반 역할을 한 가운데, 최근 선보인 고단백·저당 신제품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부상했다. 크립빵, 바게트, 슬랩 등은 칼로리와 당류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단백질 함량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유통 채널 다각화도 실적 개선에 기여했다. 자사몰을 중심으로 한 온라인 판매와 함께 오프라인 유통망 확장이 병행되며 채널 간 균형 성장이 이뤄졌다는 평가다.

넬담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26년 매출 목표를 800억원으로 설정하고 해외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미국·일본·싱가포르 등 K-푸드와 건강식 수요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글로벌 진출을 추진한다.

/신원선 기자

인사

◆한양대학교의료원 △경영지원실장 공상훈 선임부장

◆한양대학교병원 △운영지원국장 한현수 부장 △간호국장 양현 부장 △진료운영본부장 박재우 부장

부음

▲이창수(전 유도 대표팀 코치)씨 별세 = 20일, 원광대학교 산본병원 장례식장 3호실, 발인 23일 오전 8시, 장지 경기도 화성 함백산 추모공원, 031-395-4438

2028 대입, ‘숫자’의 권위가 무너진 시대



지 상 범 의

입시 토크

2028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은 대한민국의 교육 현장에 전례 없는 지각 변동을 예고하고 있다. 내신 5등급제 전환과 수능 선택과목 폐지라는 제도적 변화는 단순히 평가 방식의 수정을 넘어, 인재 선발의 패러다임을 송두리째 뒤엎는 거대한 신호탄이다. 이제 ‘누가 더 실수를 줄여 높은 점수를 얻느냐’는 결과 중심의 시대는 저물고, ‘누가 더 치열하게 탐구하며 성장했느냐’는 과정 중심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1등급 10%’의 함정: 보편화된 탁월함과 ‘세특’의 부상

가장 먼저 직시해야 할 냉혹한 현실은 내신 등급의 하향 평준화다. 기존 9등급제에서 상위 4%에게만 허락됐던 1등급의 영광은 이제 10%까지 확대된다. 과거 전교 1등부터 7등까지만 누리던 1등급의 지위가 20등까지 넓어지면서, 상위권 대학 입시에서 내신 1등급은 더 이상 탁월함의 증거가 되지 못한다. 이제 1등급 성적표는 합격을 보장하는 ‘보증수표’가 아니라, 지원을 위한

‘최소한의 입장권’에 불과하다.

대학은 이 무더진 변별력을 보완하기 위해 학생부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세특)’을 현미경처럼 들여다볼 것이다. 교과서의 지식을 넘어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심화 주제를 탐구하며 지식을 확장해 나가는 지적 호기심의 궤적이 중요하다. 따라서 학생부 기록은 착실한 학교생활의 증거를 넘어, 학생의 학문적 깊이와 잠재력을 증명하는 ‘학술적 포트폴리오’로 진화해야 한다.

◆정시의 진화 : ‘수능 올인’의 종말과 교실의 복원

변화의 파도는 수시를 넘어 정시 모집(수능 위주 전형)까지 덮치고 있다. ‘정시=수능 100%’라는 견고했던 공식이 붕괴되고 있는 것이다. 서울대학교는 2028학년도부터 정시 모집에서 교과평가 비중을 40%로 대폭 확대하며, 수능 점수만으로는 결코 인재를 선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건국대학교 역시 정시에서 학생부 정성평가 20%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고교 교육과정을 외면한 채 오로지 문제 풀이 기술만 연마하는 ‘N수생’이나 ‘수능 기계’들에게 보내는 강력한 경고장이다. 이제 정시에서도 고교 3년간의 충실한

수업 태도와 교과 이수 현황이 당락을 뒤집는 결정적 변수로 작용하게 된다.

◆선택 과목의 전략: 회피는 곧 탈락이다

고교학점제와 맞물려 2028 대입의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는 단연 ‘과목 선택’이다. 서울대, 고려대, 경희대 등 주요 대학들은 이공계열 지원자들에게 미적분, 기하, 물리학II, 화학II 등의 과목 이수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수능에서 심화수학이 폐지됐다고 해서 대학이 그 역량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대학은 수능에서 확인하지 못한 수리·과학적 심화 역량을 학생부를 통해 더욱 꼼꼼히 검증하려 든다.

따라서 “내신 따기 쉬운 과목”을 찾아다니는 알박한 전략은 2028 대입에서 통하지 않는다. 공학 계열을 지망하면서 물리학II를 피하거나, 경제학부를 지망하면서 미적분을 듣지 않는 것은 스스로 ‘준비되지 않은 학생’임을 자백하는 것과 같으며, 이는 입시에서의 ‘전략적 자살’이나 다름없다.

결국 ‘학습 설계자(Learning Designer)’만이 살아남는다. 2028 대입 패러다임의 핵심은 ‘점수의 양(Quantity)’에서 ‘역량의 질(Quality)’로의 전환이다. 이제 ‘수동적 문제 해결자’에서 벗어나 ‘능동적 학습 설계자’로 나아가야 한다. /JBS진로진학연구소장

경제규모 15위로 처졌다



김 연 세

(정책사회부)

지난 19일 국제통화기금(IMF)이 주요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했다. 이를 인용해,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4년 연속 성장세가 열세일 것이라며 염려하는 목소리가 일각에서 나왔다.

언뜻 보면 ‘경제규모 헤비급 나라보다도 둔한가’라고 해석될 수 있다. 한국은 체급이 훨씬 가벼움에도 불구하고, 저성장의 늪에서 허우적대는 게 아닌가 하는 초조감마저 들 소지도 있다. 나라 경제가 돌연 엉망이 된 건지, 그렇다면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한 배경 설명은 미흡해 보인다. 미국에 역전 당한 게 3년 전쯤부터라니 굳이 설명할 필요 없는 건지도 모르겠다.

사실 IMF의 ‘1월 세계경제전망’ 보고서를 보면, 미국과의 비교는 헛걱정이거나 모로 가도 깎아내리기 측면이 짙어 보인다. 보고서는 올해 미국 GDP(국내총생산)가 2.4%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에 반해 일본 GDP 증가는 0.7%에 그칠 것으로 봤다. 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 성장 전망치도 각각 1.3%, 1.0%, 1.1%, 0.7%로 우리나라에 비해 낮게 잡혔다. 한국에 대해선 서방 주요 4개국 수치를 모두 훌쩍 넘는 1.9%를 제시했다.

그뿐인가. 선진국으로 분류되지 않는 러시아(0.8%)와 브라질(1.6%), 멕시코(1.5%) 등도 한국보다 성장률이 낮을 것이라 전망이다. 단, 한국은 기저효과(작년 1.0% 추정)에 의해 올해 일정 수준 반등이 예견돼 있는 터라, 경기가 확 살아나고 있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 새 정부 두둔할 마음은 없다. 하지만 12·3 사태로 수렁에

빠졌던 경제·사회 복구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누군가 애써 외면하고 싶어 한다는 느낌은 지울 수 없다.

진짜 걱정할 문제는 원·달러 추이다. 해외의 다른 자료를 보니, 환율이 주요국 GDP 순위에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다는 게 보인다.한때 경제규모 10위권에 들었던 한국이다. 이후 13위까지 밀리더니 올해 기준 두 계단 더 내려간 15위로 처진 것으로 전해진다. 멕시코·호주에도 뒤지는 상황. 리서치FDI라는 곳에서 IMF 보유자료 참조해 만든 ‘2026년 기준 GDP 상위 25개국’ 보고서에 이같이 나와 있다.

재화 생산을 많이 해 자국통화 기준으로 GDP가 많이 증가해도 미 달러화 환산시 달라진다. 원화 초약세에 따라 15위권도 위태하다. 우리 바로 밑 16, 17위는 튀르키예와 인도네시아다.

/세종=kys@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1월 22일 (음 12월 4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안 되는 일을 억지로 하려 들지 마라. 48년생 기다리던 투자를 할 때. 60년생 중요하지 않은 전화를 항상 붙잡고 놓아지니 주변은 짜증난다. 72년생 감기 등으로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일진. 84년생 도리보다는 실속이 우선.



37년생 동업자와 사이에 재물손실. 49년생 이사 방향을 잘 보고 가야. 61년생 연인과 사랑은 깊어 가는데 떠나간 연인의 등장으로 혼란. 73년생 형제의 재산 나눔 시비에 관여말라. 85년생 출장 다녀와서 문서계약이 성립되는 날.



38년생 투자하다가 벼락 거질될 것. 50년생 자녀에게 돈 주려고 하기보다는 심성을 바로 쓰도록 가르칠 것. 62년생 내일부터는 무난하다. 74년생 현실이 고달프거나 저조하다면 취침을 살펴볼 것. 86년생 오후에 북쪽으로는 가지 말라.



39년생 친구가 나를 돕는다. 51년생 목표를 향해 전진하니 오후에 달성. 63년생 주식 투자계획에 세심한 주의. 75년생 일진은 미신이 아니라 주로 일상생활에서 흥한 것은 피하고 길한 것은 택하라는 것이다. 87년생 말하기를 삼가야.



40년생 낮12시에 운전 차량에 주의. 52년생 오늘은 특히 음주는 하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 64년생 각자 빨간 신호일 때 질서를 지켜라. 76년생 변화의 물결을 거부하기보다는 흐름에 합류해야. 88년생 속신도 있었으나 택일은 중요하다.



41년생 길이 생기니 기회는 늘 있는 것. 53년생 근심 걱정이 오히려 손재수를. 65년생 부귀를 암시하는 재관(財官)은 겸손에서 시작. 77년생 외출할 때에 흰색 옷이 활기차게 보일 것이다. 89년생 종교 이전의 종교는 무속신앙이 출발.



42년생 아늑하고 습한 곳에서 사는 쥐는 병을 옮긴다. 54년생 부모님의 안부를 챙겨보라. 66년생 텔레파시가 일치하는 인연을 소개받음. 78년생 뒤통지 알면 피해 가는데 도움이 된다. 90년생 전통은 풍속을 뛰어넘어 하나의 신앙이다.



43년생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바로 시작할 때. 55년생 안 된다고 희망을 버릴 수 없다. 67년생 길거리에 침 뱉는 습관은 고쳐라. 79년생 매일 아침이 오듯 자연도 부메랑이 니 깨끗하게 생활해야. 91년생 흰색 구두를 바꿔 신어 볼 것.



44년생 욕심내다 빚만 진다. 56년생 좀 더 일찍 선별 작업하면 목표의 두 배가. 68년생 심술이 발동하다 이별 수. 80년생 재개발 일에 지나치게 간섭하다 실없는 사람. 92년생 기도는 신비한 신통 술이 아니라 일상의 생활 연속이다.



45년생 오후 내내 차조심. 57년생 소소한 공중도덕을 지키는 것이 일진을 길하게 한다. 69년생 즉흥적 오후 쇼핑은 다음 날로 하자. 81년생 바람대로 되니 감사하다. 93년생 새해 들어 신년기도 발원을 통해 의도치 않은 우환을 피해간다.



46년생 조직에서 벗어난 생각은 아예 접어라. 58년생 칠성님께서 자식을 얻게 하니 그 무엇보다 감사. 70년생 일진이 막히니 귀 막아라. 82년생 로또 복권을 사고 일주일을 기다리듯 보람 있는 날. 94년생 평생 숙원인 부동산 자격증에 도전.



47년생 한눈팔지 말고 가까운 사람에게 성의를 갖도록. 59년생 전문가의 권유에 따라 매수를 하니 도움이 된다. 71년생 노력한 대가가 따른다. 83년생 오후 늦게 기쁜 소식이 온다. 95년생 능력은 없으면서 무슨 불평이 그리 많은지 반성.

김상회의四季

인생은 수행



음력으로는 을사년인데 나이 고하를 막론하고 유달리 유명을 달린 배우들이 많은 한 해였다. 양력으로는 2026년 1월이지만 을사년 동짓달에 국민배우 또 한 분의 작고 소식을 들으며 너무 빨리, 라는 안타까움과 정말 “인생을 잘 산” 분으로 새겨진다. 가수가 되었던 배우가 되었던 자신의 재능을 직업으로 삼더라도 출가 수행자라도 차별을 둘 수 없을 만큼 어떤 경지에 도달한 결과를 보여줌을 느끼게 한다. 세간의 삶에서도 국민배우 칭호를 얻을 만큼 성공했지마는 평소 살아온 모습은 수행자의 구도 정신과 닮아 있었고, 자신의 생활과 철학을 진지하게 실천해 온 분이란 걸 알게 되었다. 가끔 들려오고 보도되기도 한 기사를 통해서도 느낄 수 있었지만, 고인의 별세 소식과 함께 실린 여러 글에서도 평소 필자가 가졌던 생각처럼 직업 배우로서뿐만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도 안과 밖이 훌륭했던 아름다운 사람이었다. 그러면서 느낀다. 수행은 어디 먼 데 깊은 산속에서 동떨어진 곳에서만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란 것을.

자신의 직업에도 철저하게 준비하고 탐구하였지만, 개인의 생활에서도 존재로서의 품격을 지키는 것이 바로 방일하지 않는 노력과 절제 그리고 돌아봄이란 것을 알고 중심을 잃지 않았다. 한 작품이 끝나고 다음 작품이 시작되기 전까지 짬이 날 때면 반드시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다고 한다. “재충전 기간에 책을 한 권이라도 읽은 배우는 다음 작품에서 눈빛이 달라진다.”라는 이유였고 절대 겹치기 출연을 하지 않은 것도 “자기 축적의 기회를 얻지 못하면 연기는 상식적인 수준을 벗어날 수 없다.”라는 지론 때문이라고 하니, 일상이 수행이다. 우리 시대의 축복, 굳이 명복을 빌지 않아도 그는 이미 천국의 마음을 지녔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838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942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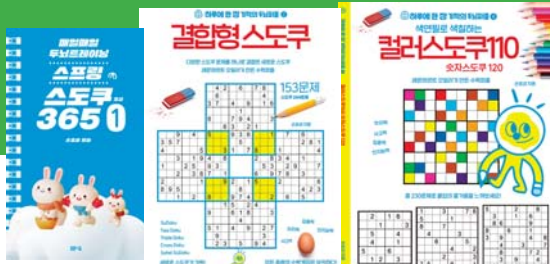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스도쿠 X는 가로세로 3X3칸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칸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3	8	9	6				
	5							
			3		5			
9			4			1		
	6			9			2	
		4			6			7
			5	3				
							7	
			2	8	5	1		



4	5				8	6		7
				6				
				7				
	9			3				1
			8		6			
1				7				4
				7				
				2				
2		9	1				3	6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난이도의 월드마음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8	1	9	8	2	2	9	6	7
2	2	7	6	1	9	9	8	8
6	9	8	8	7	9	1	2	2
2	9	6	9	8	2	7	1	8
7	2	8	1	6	8	2	9	9
9	8	1	2	9	7	8	2	6
1	6	9	9	8	8	2	7	2
8	8	2	7	2	1	6	9	9
9	7	2	2	9	6	8	8	1

9	8	7	9	8	1	6	2	2
9	2	1	6	2	9	7	8	8
2	8	6	8	7	2	9	1	9
8	7	9	2	1	6	8	9	1
8	6	2	9	1	8	9	7	2
1	9	2	7	8	9	2	6	8
6	1	8	2	9	7	8	2	9
7	9	8	1	9	2	2	8	6
2	2	9	8	6	8	1	9	7

서울시 복지시설 종사자 임금 3.5% 인상 처우 개선·복지 서비스 질 높인다

정액급식비 전년보다 1만원 올려
시설장 관리 수당도 2만원 ↑
안전관리인도 승급 가능해져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임금이 전년 대비 평균 3.5% 인상되고, 정액급식비는 1만원 오른다.

시는 ‘2026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을 마련하고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으로 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여나가겠다고 21일 밝혔다.

먼저 서울시 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과 동일한 수준으로 전년 대비 평균 3.5% 인상된다. 기본급 준수율은 2026년 보건복지부 기본급 권고안 대비 103.3%로, 전국 평균보다 3%p 가량 높은 수준이다.

2024년부터 3년간 단계적으로 인상해 온 정액급식비는 전년보다 1만원 오른 14만원, 시설장 관리 수당은 10여 년 만에 2만원 오른 22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시설 관리 업무의 책임성, 직무 전문성이 크게 확대됐음에도 승급이 제한적이던 시설 안전관리인도 사회복지사와 동일한 일반직 5급 체계로 편입시켜 승급 가능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서울시청 전경.

/메트로 DB

시는 복지 수요 증가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업무 강도가 점차 높아지는 현실을 고려해 임금·수당 외에도 종사자 처우를 개선해 왔다.

2017년 전국 최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포인트 제도’를 도입했으며 장기근속휴가, 병가 등 총 5종의 유급휴가 제도로 마련해 일과 생활의 균형을 지원하고 있다.

종사자의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2022년에는 30세 이상 종사자를 대상으로 ‘종합건강검진비’ 지원을 시작했으며, 이용자 폭력·사망 등으로 정신적 외상을 입은 경우 심리상담·치료비를 지원하는 ‘마음건강사업’도 도입해 운영 중이다.

지난해 기존 자녀돌봄휴가를 모든 종사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가족돌봄휴가’로 확대·개편해 유급휴가 연 3일을 보장하고 있으며, 장기근속 종사자가 퇴직 이후 삶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퇴직준비휴가’를 신설하는 등 생애주기형 복지제도를 강화했다.

아울러 자녀수당을 공무원 지급기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하기도 했다. 지난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실태조사 결과, 64.3%(응답자 6,307명)가 처우개선 정책을 ‘실질적인 처우에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또 복리후생제도·근무환경 등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81.7%로 나타났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초등돌봄 운영체계 개선 협의체’ 출범

서울시교육청·학비연대회의 참여

서울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가 ‘초등돌봄 운영체계 개선 협의체’ 구성을 환영하며, 시간제 돌봄전담사에 대한 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촉구했다.

연대회의의 소속 단체인 전국여성노동조합(전국여성노조) 서울지부는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등돌봄 운영체계 개선 협의체’ 서울시교육청 공식 기구 출범을 환영한다”며 “이번 출범은 늦었지만 반드시 필요했던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교육청과 연대회의가 참여한 초등돌봄 운영체계 개선 협의체는 2023년 7월 구성될 예정이었으나, 약 2년 5개월간 지연돼 지난해 12월 24일에야 구성안이 최종 협의됐다. 지난해 6월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전국여성노동조합과의 간담회 이후 협의체 관련 내용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초등돌봄 운영체계 개선 협의체는 이날 오후 3시 첫 협의를 진행했다. 협의체는 ▲시간제 돌봄전담사 근로시간 연장 여부의 필요성 ▲돌봄전담사의 직무분석 조사 항목 ▲돌봄전담사의 근무 여건 및 업무 환경 등 처우개선 ▲질 높은 돌봄을 위한 서비스 개선 등을 논의했다.

/이현진 기자

‘AI·디지털 전환’ 전문대학 고등직업교육 혁신 사례로

교육부-한국연구재단 성과 공유회
우수사례 발표하고 미래 전략 논의

인공지능(AI)·디지털 전환으로 고등직업교육 혁신을 이끈 전문대학들의 사례 발표회가 진행된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오는 22일부터 23일까지 서울 드래곤시티 호텔에서 ‘2025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성과 확산 공유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공유회는 전국 118개 전문대학이 참여해 AI과 디지털 전환을 중심으로 추진해 온 고등직업교육의 혁신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고등직업교육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은 대학의 자율적인 혁신을 통해 고등직업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2025년 총 118개 전문대학에 5555억원의 예산을 지원해 각 대학이 지역 및 산업 수요에 부응하는 전문기술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특히 2025년부터 시작된 3주기

(2025~2027) 사업은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AI·디지털 전환을 중점으로 한 교육혁신을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공유회에는 전문대학 관계자 약 550명이 참석해 ▲AI 활용 및 디지털 전환 사례 15건 ▲교육혁신전략, 고등직업교육혁신, 산학·지역협력혁신 등 혁신분야별 우수사례 15건을 발표하고, AI 시대 고등직업교육의 미래 전략을 논의한다.

‘AI 활용 콘텐츠 공모전’과 ‘현장 과제 해결형 캡스톤 디자인’ 등에서 수상한 학생 12팀이 직접 성과를 발표하며 학습자 관점의 혁신 사례를 생생하게 전달할 예정이다.

서일대, 계명문화대, 한양여자대 등이 AI 활용 및 디지털 전환 사례를, 명지전문대, 대구과학대, 경민대 등은 혁신 분야별 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다.

최고진 교육부 장관은 “전문대학이 AI 시대 고등직업교육 혁신과 지역 발전의 거점이 되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디지털 운동존을 활용하는 모습.

/서울시

도봉구에 ‘어르신 디지털 복합공간’ 개관

운동·여가 등 엮은 생활형 공간

디지털 교육과 상담, 체험을 한 곳에서 제공하는 서울디지털동행플라자의 4번째 권역 센터인 도봉센터가 출범했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디지털동행플라자 도봉센터는 도봉구민회관(도봉로 552) 4층에 조성돼 대중교통 접근성이 뛰어나고 장·노년 시민이 생활권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다.

도봉센터는 5대 표준 디지털 체계(인공지능·신기술, 관계·소통, 일상·자립, 안전·보안, 문화·여가)를 중심으로 어르신이 자신의 수준과 관심에 따라 이동하며 참여할 수 있게 했다.

시험이나 성취 평가가 아닌 메신저·누리소통망(SNS) 소통, 모바일 행정서비스 신청, 배달·교통 앱 사용 등 생활 속 상황을 반복 경험할 수 있다.

도봉센터는 운동·인지·여가 활동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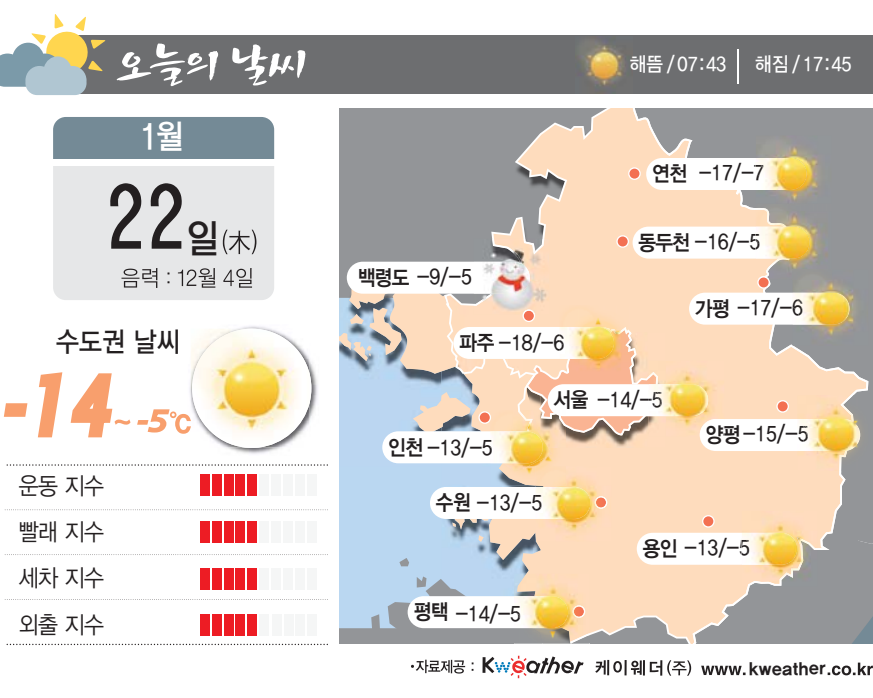
하나로 엮은 생활형 디지털 공간으로 운영된다. 신체 활동과 디지털 체험을 결합한 ‘디지털 운동존’이 핵심 공간이다.

디지털 운동존에는 스크린 파크골프, 증강 현실(AR) 체육 시스템, 스마트 근력 운동기, 꿈의 자전거 등 디지털 운동 기기를 설치했다.

인공 지능 로봇 바둑, 해피테이블, 무인 안내기 체험 등을 통해 쉬면서 디지털을 접한다. 대형 발광다이오드(LED) 미디어월은 정책 정보 전달을 넘어 영화 상영과 콘텐츠 공유가 가능한 생활권 디지털 소통 공간으로 활용된다.

서울디지털동행플라자는 2023년 말 은평·영등포 센터 개관 후 누적 16만 5000여명이 이용했다. 이용 만족도 96.3%, 재방문율 80%를 기록했다. 다음 달 동대문센터 개관을 시작으로 연내 총 6개 권역 거점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현진 기자



서울교육청 동계 직무연수 운영

서울시교육청은 21~23일 숙명여자대학교에서 서울교육청 소속 초·중·특수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동계 혁신미래교육 아카데미 직무연수를 운영한다.

이번 연수는 혁신미래학교 교육과정 공동 설계·수업·평가 혁신 과정을 보편적으로 적용하고 확대할 수 있도록 참여형으로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연수 과정은 혁신미래학교의 속의 기반 교육과정·수업·평가설계를 이룬 학습과 실습으로 연계해 기획했다.

/이현진 기자

메트로 한줄뉴스



▲21시간 밤샘 조사 마친 강선우 “남은 수사 성실하게 임할 것” /사진 뉴시스
▲신규 원전 필요성 물어보니…국민 60% 이상 “계획대로 추진해야”

▲민주노총 “‘일하는사람법’ 만으로 특고 못 지켜…근로기준법 확대해야”
▲‘서현역 흥기난동’ 가해자 부모 책임 0%…“피해 회복 더 멀어져”

▲보이스피싱 피해금 1조5000억 ‘돈세탁’…7명 구속기소
▲불륜녀, 母와 연프 출연 충격…‘합숙맞선’ 통편 집



CJ올리브영
세포라와 손잡고
글로벌 공략
N1



쓴맛 덜고, 간편함 채우고 파우치에 담은 ‘활력루틴’

메가히트 브랜드 탄생스토리

KGC인삼공사 ‘정관장 홍삼원’

‘홍삼은 어렵다’는 인식을 깨뜨린 음료가 있다. 파우치 하나로 차갑게 혹은 따뜻하게 즐길 수 있는 일상형 건강음료 ‘홍삼원’이다. 1988년 첫 출시 이후 36년간 진화를 거듭해온 홍삼원은 연 매출 1032억 원을 돌파하며 단일 브랜드 ‘메가 히트’ 반열에 올랐다. 국내 477억원, 해외 555억원. 숫자는 홍삼원의 현재를 증명한다.

깊고 진한 홍삼 풍미에 자연원료 조합 부담없이 간편섭취 가능한 ‘건강음료’ 건강식 수요변화 반영…홍삼 문턱 낮춰

◆일상에 스며든 홍삼

홍삼원의 브랜드 아이덴티티는 명확하다. 맛있고(Tasty), 부담 없으며(Easy), 개인의 상황에 딱 맞는(Bespoke) 건강음료다. 깊고 진한 홍삼의 풍미를 바탕으로 대추·생강·구기자 등 엄선한 자연 원료를 조합해 ‘홍삼=쓴맛’ 공식을 깼다. 건강관리 입문자도 쉽게 고를 수 있도록 제형과 맛의 문턱을 낮췄고, 파우치·병·세트 등 다양한 라인업으로 섭취 상황을 넓혔다. 부담을 낮추고 선택은 늘렸으며,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도 건강음료로 각광받고 있다.

127년 정관장의 기술력은 ‘쉽게 마시는 홍삼’의 품질을 떠받친다. 원료 선별부터 배합, 공정까지 축적된 노하우로 일상 활력 관리라는 실용적 가치를 구현했다.

이 같은 변화는 건강기능식품 시장 전반의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 고령층 중심이던 건강식품 소비가 2030세대로 확장되면서 ‘효과’보다 ‘섭취 경험’과 ‘편의성’을 중시하는 경향이 뚜렷해졌기 때문이다. 알약이나 농축액 대신 음료 형태를 선호하고 쓴맛보다 맛과 향을 따지는 소비자가 늘었다. 홍삼원은 이러한 수요 변화를 가장 먼저 포착해 홍삼을 일상 소비재로 재배치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업계에서는 홍삼원이 홍삼 시장의 외연을 넓히며 신규 수요를 끌어들이는 대표 사례로 꼽힌다.

◆세분화 전략으로 다양한 고객층 확보

홍삼원의 성장에는 촘촘한 제품 전략이 있다. ‘홍삼원 세트’는 6년근 홍삼과 전통 식물성 소재를 과학적으로 배합해 누구나 부담 없이 섭취하도록 설계했다.

‘홍삼원 딜라이트’는 비타민·필수아미노산·라임 농축액을 더해 상큼함을 강화한 ‘칼로리·색소 제로’ 제품으로 젊은 수요를 끌어안았으며, ‘홍삼원 골드 세트’는 황정·영지버섯농축액·녹용추출물 등을 더해 에너지 충전을 전면에 내세웠다. ‘데워먹는 홍삼원’은 전자레인지 20초로 따뜻하게 즐기는 파우치 타입으로 ‘차 한 잔의 여유’를 제안한다.

여기에 영지버섯과 녹용을 더한 ‘홍삼원기(氣)’, 홍삼 함량을 높인 ‘홍삼원 플러스’까지 더해 선택지는 더욱 넓어졌다. 한국 8종, 해외 26종으로 구성된 라인업은 시장과 소비자의 변화를 빠르게 반영한 결과다.

무카페인 건강음료… 세계에 홍삼 알려 중국·동남아·미국 등 글로벌 유통망 확대 허브음료로 접근… 국가별 맞춤 마케팅 혈당조절, 남성건강 등 제품 라인업 확장

◆해외서 더 뜨거운 카페인 없는 에너지 음료

홍삼원의 또 다른 성장 축은 해외다. 주요 수출국인 중국과 동남아, 일본, 미국에서 세자릿수의 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공통분모는 ‘카페인 없는 건강한 에너지’다.

중국에서는 한국 홍삼을 ‘고려삼’으로 인식하는 프리미엄 이미지를 앞세워 7종을 운영, 광동성을 중심으로 판매가 확대됐다. 동남아에서는 2018년 할랄 인증을 획득해 말레이시아·싱가포르의 가디언, 왓슨스 등 H&B 채널에 입점하며 유통망을 넓혔다.

일본에서는 40대 여성의 피로 관리 니즈에 맞춰 홍삼 함량이 높은 ‘홍삼원 플러스’가 호응을 얻고 있다. 미국에서는 프리미엄 에너지 음료로 포지셔닝해 30대 남성을 중심으로 코스트코 약 140개 매장에서 판매되며, 아마존·이베이 등은 라인업에서도 존재감을 키웠다.



▲데워먹는 홍삼원
◀홍삼원



◆끝없는 연구개발이 성공 전략

홍삼원의 성공 방정식은 단순하다. 연구개발(R&D)과 현지 맞춤형 전략. 맛과 제형, 인증과 유통까지 국가별로 다르게 설계했다. ‘허브 음료’로 접근한 해외 전략은 에너지 드링크 시장의 틈새를 정확히 파고들었다.

한편, 국내 건강기능식품 1위 기업인 KGC인삼공사는 고품질 원료와 차별화된 제조 노하우를 바탕으로 ‘홍삼정’, ‘에브리타임’, ‘홍삼톤’, ‘천녹’, ‘황진단’ 등 스테디셀러 브랜드를 선보이며 건강식품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최근에는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는 신제품 ‘GLPro(지엘프로)’, 남성 건강을 위한 ‘RXGIN(알엑스진)’, 오리지널 침향으로 만든 ‘기다림 침향’ 등을 출시하며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고 있으며, 젊은 고객층을 겨냥한 ‘에브리타임 플레이버’, ‘아미노 활기력샷’은 맛과 제형에서 트렌디함을 더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홍삼원 딜라이트.

/KGC인삼공사



▲‘이강인 부상’ PSG, 스포르팅에 석패…UCL 16강 직행 적신호 /사진 뉴시스
▲SSG 스프링캠프 23일부터 시작…선발진 뎁스·타선 OPS 향상 목표

▲유수영, 한국계 스미스 상대 UFC 3연승 도전…3월15일 맞대결
▲‘당구 여제’ 김가영, 윤국 김운용 여성체육대상 영예

▲‘일무’ 정해진·김성훈·김재덕, 베시 어워드 수상…국공립단체 韓 안무가 최초
▲콘원원, 도쿄서 ‘2026 K-웹툰 전시’ 개최…20여 작품 소개

SK telecom

마음은 이미 로밍 중

T 로밍 baro 요금제 하나면

 다양한 멤버십 혜택
클럽 T 로밍

 에이닷 전화로
baro 음성통화 무료

 온 가족 로밍 해결
가족로밍

 0청년 고객님
로밍 50% 할인

자세히 보기



baro 요금제 가입 시 문자 기본 제공 | 가족로밍 요금제는 대표 회선이 추가 가입 (3,000원)하면 최대 4명의 가족과 공유 가능 (단 SK텔레콤 가족 결합 상품 가입 또는 가족 관계 증명서로 증명 필수) | 에이닷전화로 baro 통화 이용 시 음성로밍 요금 미발생 (한국 및 방문 국가의 발신제외) | 클럽 T 로밍 혜택은 T 멤버십 앱에서 확인 가능 | 로밍 50% 할인은 baro 요금제 가입 후 로밍 데이터 사용을 시작한 시점에 0청년 요금제를 이용 중인 경우에만 제공 | 더 자세한 내용은 T 월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지금 에이닷에게 [baro 요금제]를 물어보세요.

